

일반

‘장소 상실’에서 ‘장소 소외’로* From ‘loss of place’ to ‘place alienation’

최병두**

이 논문은 현대 도시에서 심화되고 있는 소외 문제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지리학 및 관련 연구 분야에서 그동안 단편적으로 논의되었던 장소 상실과 관련된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이론화하기 위하여 장소 소외의 개념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장소 및 장소 상실과 관련된 여러 개념들, 즉 무장소성, 비장소, 장소 전치, 장소 착오, 역공간 등을 재이해하고자 한다. 이에 이어 장소 소외의 개념화를 위하여, 기존의 소외에 관한 논의들, 특히 마르크스주의적 전통에서 ‘노동 소외’의 개념 및 이와 관련된 소외의 4가지 유형들, 그리고 상품 물신성과 물화의 개념 등을 장소 소외의 개념화에 응용하는 한편, 장소의 3가지 구성요소들, 즉 위치, 로케일, 장소감과 관련하여 장소 소외를 위치(제자리)의 상실, 구조에 의한 행위의 지배, 장소감(또는 장소 정동)의 상실로 개념화한다. 이러한 장소 소외 개념의 유의성과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소와 소외에 관한 기존 이론가들, 마틴 하이데거, 한나 아렌트, 발터 벤야민, 그리고 미셸 드 세로토의 저술들을 재해석하고자 한다.

주요어: 장소 상실, 장소 소외, 하이데거, 아렌트, 벤야민, 세르토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NRF-2021S1A5A2A01069700).

**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명예교수(Honorary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 bdchoi@daegu.ac.kr).

1. 머리말

경제가 성장하고 도시가 비대해지면 해질수록, 소외된 인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는 것 같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과 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스마트시티 개념은 이러한 상황을 대변한다. 이에 관한 담론들은 미래 사회의 모든 것이 최첨단 인공지능기술에 의해 자율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는 벅찬 희망을 안겨주지만, 이는 사실 모든 것이 점점 기술적 타율에 의해 지배되며 인간은 철저히 소외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해 준다. 현대 도시들이 누리는 물질적 풍요와 장엄한 외관은 이를 만들어 내는 인간의 고통을 숨기고 있을 뿐 아니라 되돌아와 인간의 삶을 억누르고 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자신의 삶이 이렇게 짓눌리고 있음을 알지 못하거나, 어렵פות이 느끼긴 할지라도 왜 이러한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소외가 만연해 있으며, 미래 사회에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소외의 개념은 헤겔과 마르크스로 이어지는 마르크스주의와 키에르케고르와 하이데거로 이어지는 실존주의의 철학적 전통들 속에서 핵심적 이슈였으며, 프랑크푸르트학파나 포스트모던 이론가들로 이어져 1970년대 철학 및 사회이론에서 연구의 정점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이후 소외 연구는 일부 학자들에 의해 명맥을 유지해 왔지만 학문적 사유의 중심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잘 알 수 없지만, 이 시기를 계기로 정보화 사회 또는 탈산업사회로의 전환으로 인간의 소외가 점차 완화된 것으로 추정되거나 기대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인간의 소외는 완화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소외 개념이 본질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자신이 소외되었다는 사실을 점점 더 망각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소외는 그동안 별로 논의되지 않는 잊혀진 개념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날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소외에 관한 학술적 관심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음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이 논문은 이러한 현실적, 학문적 상황을 배경으로 도시(공간적) 소외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장소 소외’에 관한 입문적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 동안 도시 사회공간에 관한 연구에서 장소의 개념과 장소의 상실에 관한 논의들이 상당한 관심을 끌었으며, 관련된 여러 개념들, 예로 무장소성, 비장소, 장소 전치, 장소 착오, 역공간 등이 주요 주제가 되었지만, 대체로 단편적 논의 수준에 머물렀고, 통합적, 체계적 개념 또는 이론으로 나아가질 못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장소의 개념 및 장소 상실에 관한 기존 논의들을 재검토하는 한편,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장소 소외’를 제안하고자 한다.¹⁾ 장소 소외의 개념은 이처럼 장소의 개념 및 장소 상실에 관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주요 논제일 뿐 아니라, 이러한 논제를 기존의 철학 및 사회이론에서 핵심적 주제들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는 소외에 관한 전통들과 연계시킴으로써 도시적, 공간적 측면에서 소외 개념의 외연을 확장시키고 관련 논의들을 다원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장소 소외의 개념을 기존 철학적, 사회이론적 논의에서 제시된 소외의 개념을 원용하여 장소 소외의 개념을 구성하는 한편, 기존 장소(상실)에 관한 개념 규정에 준거하여 장소 소외의 개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단 장소 소외의 개념이 설정되고 그 유의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관한 연구는 장소 소외에 관한 구체적 경험 사례들에 관한 고찰, 장소 소외의 역사적 과정에 관한 탐구, 그리고 장소 소외 개념이 기존 소외론 전통에서 어떻게 명시적 또는 은유적으로 함의되어 있는가에 관한 해석 등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세 번째 연구 과제로서 마틴 하이데거와 한나 아렌트, 발트 벤야민과 미셸 드 세로토 등의 저서들에서 장소 소외와 탈소외가 어떻게 이

1)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최병두(2002)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 논문과 부분적으로 중첩되지만, 논문의 완결성과 독자의 이해를 위해 일부 겹치는 부분을 그대로 두었다. 이 논문의 초안은 영남대학교 인문교육학술원 콜로키움(2022.9.28.), 한국공간환경학회 추계학술대회(2022.11.11.), 그리고 영남대학교 인문교육학술원 국제학술대회(2023.1.12.)에서 발표되었다.

해되고 있는가를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 철학 및 사회이론에서 소외에 관한 주요 이론가들은 공간적 관점과 문제들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 점은 ‘공간적 전환’과 관련된 논의들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공간적 전환과 관련하여 거론되는 주요 이론가들의 연구는 엄격하게 말해 경제, 정치적 체계가 작동하는 기능적 공간이라기보다는 인간 행위와 삶이 영위되는 장소에 관한 관심의 발로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장소 소외의 개념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이론가들의 저술을 재해석하는 작업은 비판적 장소론의 정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장소의 개념과 장소 상실

장소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또한 상당히 복합적이고 중층적이며, 때로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개념이기도 하다. 예로, 장소는 일정한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또한 다규모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즉 우리는 장소라는 용어를 어떤 사물(신체를 포함하여)이 위치하거나 차지하는 자리에서부터 가옥, 이웃, 구역, 지역사회 등 비교적 국지적인 규모에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즉 생활공간)으로 이해하고 사용하지만, 때로는 국가적, 세계적 차원에서 ‘조국’이나 ‘지구촌’이라는 장소감(또는 장소성)을 함의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²⁾ 이러한 점에서, 우선 장소의 개념을 예비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보다 세련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즉 우리는 일단 장소를 인간의 생존과 생활을 위해 일상적 활동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물리적 배경과 이에 부여된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장소는 흔히 공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즉 공간은 인간의 활동이

2) 이와 관련하여 Massey(1997)가 제시한 ‘지구적 장소감’(global sense of place) 개념과 이를 둘러싼 논의들에 관하여, 크레스웰(2012), 제3장 참조.

나 사회적 기능 또는 사물들의 위치 간 연장으로서 추상적이고 물리적인 범위와 관련된다면, 장소는 체험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의 기반이면서 맥락적이고 문화적인 의미와 관련된다. 물론 공간과 장소는 분리된 두 개의 실체가 아니라 동일한 것의 두 측면을 지칭한다. 이러한 점에서 공간과 장소 간 변증법을 주장한 하비(1995)나 메리필드(Merrifield, 1993)에 의하면, 공간은 사회적 과정의 결과이며 또한 동시에 그 자체로서 하나의 과정으로 사회적인 것을 재창출한다고 할 수 있다. 장소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실천들이 전개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실천적 공간이다. 실천의 장으로서 장소는 과정으로서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며, 또한 동시에 장소의 구축을 통해 공간이 형성되고 재형성되게 된다.

인간의 활동이나 사물이 등장하는 무대, 또는 사회적 실천들이 전개되는 곳 또는 터라는 점에서 장소는 인간의 행위와 사회의 구조를 매개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위와 구조의 변증법, 즉 구조화이론을 주창한 기든스(1991: 204)는 장소라는 용어 대신에 상호행동의 무대를 함의하는 현장(loca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 현장은 단지 상호행동의 배경 또는 물리적 환경과 관련되기보다는 이 상호행동의 생산과 재생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해 능동적으로 조직된 것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 맥락성을 강조하는 ‘현장’이라는 용어는 장소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나 규범적 가치 등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일부 지리학자들에 의해 거부되고, 대신 장소의 개념에 이러한 현장이라는 용어의 함의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되었다.

다른 한편, 장소는 인간의 활동, 특히 체험과 이를 통해 부여 또는 획득된 의미(감정 또는 정동)와 관련된다. 즉, 장소는 의미가 부여된 공간이다. 장소의 체험은 인간 활동과 공간 환경 간의 관계를 통해 구축되며, 의미 부여의 동기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렐프(2005: 25)는 하이데거를 인용하면서, “장소는 인간 실존이 외부와 맺는 유대를 드러내는 ... 방식으로 인간을 위치시킨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어떤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의 합리적, 의도적 의식

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 특히 신체를 통한 감정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예로, 시먼(Seamon, 1980)은 일상생활에서 연속되는 움직임을 신체-발레(body-ballet)라는 은유로 표현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신체 움직임을 넘어 반복적이고 집단적인 행위를 통해 형성되는 장소성을 설명하고자 했다.³⁾ 신체를 통한 체험과 관련된 장소의 개념화는 크레스웰(2012: 54)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장소를 “뿌리내림과 진정성보다는 신체적 이동성이 장소 이해에 핵심적 구성요소”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신체와 관련시킨 이러한 장소(감) 설명은 뒤에서 논의할 것처럼 신체적 감응 상태로서 ‘정동’의 개념과 연계될 수 있다.

전통적 의미에서 장소감(sense of place)이란 개인이 자신의 체험을 통해 부여하거나 또는 생성(획득)된 장소와의 관계를 통해 부여된 어떤 의미를 말한다. 엔트린킨(Entrinkin)에 의하면, 장소감은 객관적으로 공유하는 환경의 속성과 이 환경과 관련하여 주관적으로 특유한 경험 사이에 놓여 있다. 그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장소의 사이성(betweenness of place)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즉, 그는 “장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현실과 주관적인 현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 장소는 그 중간지점에서 가장 잘 파악된다”고 기술하였다(Entrinkin, 1991: 5). 객관적 관점에서 보면 장소는 입지 또는 공유된 일련의 관계로 간주되며, 주관적 관점에서 보면 장소는 의미와 상징의 영역이다. 이러한 장소감이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 차원에서 사회적 의식으로 승화될 때, 우리는 ‘장소성’(placeness)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장소성이란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이 집단적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그 생활의 기반이 되는 장소에 대해 가지는 사회적 의식 또는 공간적 정체성을 의미한다.

3) ‘신체적 이동성이 장소 이해의 핵심 요소’라는 시먼의 주장은 메를로 폰티(Merleau-Ponty)의 현상학에 따른 것이지만, 이는 뒤에서 논의할 바와 같이 뿌리내림과 진정성을 강조하는 하이데거의 실존주의적 장소 개념보다 벤야민의 산책자나 세르토의 걷기의 개념에 함의된 신체적 이동성으로서 도시(장소) 이해, 특히 물신화된 도시로부터 탈소외와 연결될 수 있다.

장소감 또는 장소성에 관한 전통적 논의에서는, 장소의 정체성, 뿌리내림(rootedness), 그리고 존재론적 안전감 등과 같은 규범적 가치가 흔히 거론된다. 즉. 인간의 삶이 지속적으로 영위되는 장소는 상호행위와 생활양식에 근거한 정체성, 소속감, 안전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된다(Tuan, 1980).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체험적 활동을 통해 장소를 구성하는 물리적 및 인공적 환경에 대해 다양한 상징적 의미나 가치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체험에 대한 기억의 반추를 통해 자신의 생존과 생활에 대한 의미를 (재)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과 그 장소들은 어떤 물체 그 자체로 존재하기보다는 사회적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사회적 관계는 사람들이 그들의 장소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가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장소의 사회적 생산의 특성을 설명해 준다. 장소를 통한 정체성의 형성은 물론 단지 사회적 관계에서의 소속감을 드러내는 것이라기보다는, 뒤에서 논의할 것처럼 하이데거가 주장한 바와 같이 장소에의 ‘뿌리내림’을 통한 삶의 안전감과 관련된다.

그러나 장소에 관한 논의에서 문제는 장소 그 자체(특히 물리적 배경)가 어떤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거나, 또는 장소기반적 정체성이 배타적 소속감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장소 및 장소성이 가지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렐프(2005: 310)가 장소감의 진정성과 관련하여 지적한 바와 같이, 장소성은 공유된 문화적 전통을 반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엄청난 부정을 감출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장소에 대한 조심스럽고 비판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사실 장소에 관한 전통적인 논의들은 대부분 장소성을 규범적이고 좋은 것, 선한 것 또는 진실된 것이며, 이의 개선을 통해 생활환경을 보다 아름답고 질서 있게 하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정의로운 공동체를 위한 기본적인 능력을 육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장소(성)는 항상 긍정적, 규범적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장소에 관한 연구는 이처럼 장소의 개념에 함의된 규범적 의미와 함께 이의 한계 또는 부정적 측면들을 지적하는 한편, 현대 대도시에서 장소 상실과 관

련된 다양한 유형의 개념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이론적,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장소 상실과 관련하여 가장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개념으로, 무장소성, 비장소, 장소 전치, 장소 착오 등을 들 수 있다. 이 개념들은 공통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장소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사회공간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서로 다른 측면이나 관점에서 장소 상실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오늘날 대도시들이 다양한 장소들로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왜 장소가 사라졌다고 하는가에 대한 의문에 답하고자 한다.

‘무장소성’의 개념은 실존주의적 지리학자 렐프(2005)가 1979년 출간한 저서 『장소와 장소 상실』의 핵심 주제이며, 그 이후 인문지리학을 넘어서 장소를 연구하는 많은 사회·인문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렐프에 의하면, 현대 세계에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장소와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무장소성이라는 보편적 조건에 처해 있다. 이러한 주장을 위해 그는 하이데거의 실존주의를 원용하여 장소 경험을 2가지 유형, 즉 내부성의 경험과 외부성의 경험으로 구분한다. “장소 내에 있다는 것은 장소에 속한다는 것이고 장소와 동일시된다는 것”이며, 반대로 장소의 바깥에 있다는 것은 “실존적 내부자로부터 나오는 무의식적인 소속감과 반대되는 것”이다(렐프, 2005). 크레스웰(2012: 71)의 해석에 의하면 오늘날 만연한 무장소성 때문에 사람들은 실존적 내부자가 될 수 없고 장소로부터 소외된다고 주장된다.

렐프에 의하면, 이러한 무장소성이 유발되는 과정은 다양하며, 여기에는 중앙집중화된 거대 기업과 정치권력에 의한 국지적 장소성의 상실, 그리고 대중매체(매스 미디어)와 대중문화에 의한 장소-특정적 문화의 소멸, 또한 상품화된 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장소의 디즈니랜드화, 박물관화, 미래화 등이 포함된다. 예로, “미디어는 직간접적으로 ‘무장소성’을 조장한다. 다시 말해 장소의 정체성을 약화시켜서 결국 장소들이 서로 비슷하게 느껴지고 경험 가능성도 똑 같이 단조롭게 된다”(렐프, 2005: 198). 또한 교통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이동성의 가속화와 시공간적 압축은 이러한 무장소성이 세계적으로 만연하도

록 한다. 예로 주변 경관으로부터 분리된 고속도로는 새로운 장소들 창출하거나 장소들을 연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장소를 파괴하고 장소감이 형성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장소 상실에 관한 논의에서 무장소성의 개념과 더불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개념이 ‘비장소(non-place)’이다. 인류학자 마이크 오제(2017)에 의하면, 비장소는 특정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관계의 부재, 정체성의 부재, 역사성의 부재 등으로 인해 인간적인 장소가 될 수 없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학자로 알려진 웨버(Webber, 1964)는 이를 접근성의 통제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했다. 즉 일상생활에서 접근이 통제된 곳은 의미를 가질 수 없으며, 따라서 비장소로 지칭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개념이 점차 일반적으로 사용되면서, 비장소는 일상적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친숙하기보다 낯설며 역사적 의미를 가지지 않을뿐더러 어떠한 애착이나 정체성, 안전감을 부여하지 않는 장소를 지칭하게 되었다.

오제는 비장소의 개념을 ‘초근대성’ 사회에서 일상공간이 작동하는 구조와 관련시켜 분석했다. 그에 의하면, 오늘날 근대성이 극한에 달한 사회, 즉 초근대성의 사회에서는 과거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던 경험과 사회적 관계와의 단절로 역사성이 상실된 채 현재의 시간만이 중시되는 공간들이 만연해 있으며, 이러한 공간에서 개인은 원자화되면서, 그 특이성은 사라지게 된다. 그는 이러한 초근대성의 시공간적 조건들이 발현되는 공간을 비장소라고 지칭한다. “장소가 정체성과 관련되며, 관계적이고 역사적인 것으로 규정된다면, 관계와 역사성 그리고 고유한 정체성이 부재하는 공간은 비장소가 된다”(오제, 2017: 97). 이러한 비장소는 머물면서 의사소통하는 장소가 아니라 단지 스쳐 지나가는 장소에 불과하지만, 오늘날 일상생활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김연영, 2020: 33).

예로, 오늘날 도시인의 대부분은 지하철역과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하루의 일과와 동선을 구성한다. 특히 시공간을 압축하는 교통수단의 발달과 이에 따라 급증한 여행의 공간은 비장소의 원형으로 예시된다. 과거의 기차는 각 역

마다 이야기가 있는 장소에 멈추고 떠나가면서, 그곳 사람들의 은밀한 일상성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오늘날 고속화된 기차는 작은 역들은 서지도 않은 채 빠른 속도로 통과한다. 이렇게 과속으로 통과하는 장소들은 아무런 기억을 만들지 못한다. 속도를 증대시키는 이러한 초근대적 장치들은 비장소를 강화, 확대시킴으로써 전통적 의미의 장소들을 소멸시키고 장소감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 오늘날 만연한 이러한 비장소들에서, 도시인들은 아무런 정체성, 관계, 의미를 가지지 못한 채, 장소로부터 소외를 경험할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초근대성은 개인적 의식이 비장소의 출현과 범람과 직접 관련된 새로운 소외의 경험과 시련을 겪도록 한다”고 주장된다(정현목, 2013: 93).

다른 한편, 크레스웰(2012: 제4장; 또한 Cresswell, 1996)은 장소 상실과 관련하여, ‘장소 착오’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장소 착오(anachorism)란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어떤 활동이나 사건이 제자리를 벗어나 있거나 잘못된 장소에 놓인 상태를 의미한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장소는 사람이나 사물의 ‘자리’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이들이 제자리에 있거나 또는 제자리를 벗어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어떤 사람이나 사물들은 오랜 사회적 시간 동안 지속적인 활동이나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자리, 즉 제자리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렇게 설정된 사람이나 사물들과 이들의 제자리(장소) 간 관계는 사회적으로 어떤 공간적 질서로 간주되고 제도화될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나 사물들이 제자리를 벗어나 있다고 판단되면, 이는 공간적 질서의 위반을 범한 것이 된다. 제도적으로 규정된 제자리를 벗어난 사람이나 사물들은 흔히 범법자이거나 쓰레기로 묘사된다.⁴⁾

4) 예로 “신발은 그 자체로는 더럽지 않다. 그러나 그것을 식탁 위에 놓으면 더럽다. 음식은 그 자체로는 더럽지 않다. 그러나 침실에 조리기구를 놓아두거나, 옷에 음식물이 튀었을 때 음식물은 더럽다”(Douglas, 1966: 36; 크레스웰, 2012: 160 재인용). 여기서 신발과 식탁, 음식물과 침실 또는 옷과의 (부조응) 관계는 이들에 내재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범화 또는 제도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즉, 더글러스(Douglas, 1966)와 이를 인용한 크레스웰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행위가 ‘제자리를 벗어나’ 있는지 여부는 이전부터 존재해온 어떤 분류체

크레스웰이 제시한 장소 착오의 예시적 사례로, 2가지 사례, 섹슈얼리티 및 노숙자와 장소 간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예로, 이성애자들은 공적 공간에서 키스를 하는 것이 자유롭다고 느끼지만, 동성자들에게 이러한 행동은 ‘제자리를 벗어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때로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노숙자들은 자신들의 집(제자리)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사람들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들은 흔히 공원이나 거리에서 생활하지만, 이 장소들은 이들의 자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내쫓긴다. 이처럼 자신의 행동이 기존의 공간적 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심각하게 제약되거나 이로 인해 장소에서 내몰리는 자들은 단지 성소수자나 노숙자들만 아니라 봉건사회의 해체기 유랑민이나 오늘날 이주노동자, 국제 난민,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기존의 삶터에서 강제로 추방되는 자들을 포함한다. 이들은 사회의 주류 구성원들로부터 배제될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 특정 장소에서 소외된 자들로, 자신의 장소로부터 내몰린 자들이라는 점에서 장소 전치와 관련된다.

장소 전치(displacement)는 흔히 사회적 격변(전쟁, 재난, 빈곤 등)으로 인한 외적 강제로 발생하는 비자발적 이동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로 난민이나 외국인 이주자들의 국제적 이동이나 도시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원주민들의 내몰림 등을 설명하기 위해 원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장소 전치는 이러한 물리적 장소 이동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기존 사회 또는 그 사회가 근거한 장소와의 관계성이 약화되는 상황, 즉 생계 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에 대한 접근이 제약되거나 정치적 또는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속해 있던 사회와 장소로부터 내몰리는 상황과 관련된다. 달리 말해, 난민, 이주자, 노숙자들의 이동과 같이 장소 전치는 “의미 있는 삶의 터전인 장소와의 분리” 또는 “제자리를 벗어난 장소 밖의 존재들에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정예슬, 2022: 83).

외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변화의 충격은 일상생활의 특정한 현장에서 형성되는 소속감과 정체성의 원천으로서 장소감을 불안과 내몰림에 의한 전치의 감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삶의 터전으로서 장소에서 전치된 사람들은 본래 자신이 속해 있었던 사회와 장소를 통해 획득된 개인적, 집단적 정체성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 등에서 분리되고 내몰림(추방)에 따라, 불안정한 사회정치적 상태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불안정이 심화되면, 장소 전치에 내재된 저항의 가능성으로서 장소의 재구성이 촉발될 수 있다. 이러한 장소 전치의 개념은 국가적 또는 국제적 규모의 거시적인 변화로 발생하는 국제 난민의 비자발적 이주와 불안정하고 비참한 삶에 관한 연구에서부터 국지적으로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이 법적 경계로 정의된 ‘노동자들의 장소’ 밖의 작업장에서 관계를 기반으로 장소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과정에 관한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장소 상실에 관한 비판적 논의는 장소 상실과 관련하여 학술적으로 개념화된 여러 용어들 외에도 장소 상실을 의미하는 장소 소멸, 장소 종말, 장소 침식 등과 같은 일반적 용어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용어들 자체는 개념화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장소 상실의 개념적 함의들을 가진다. 예로, 크론(Cronon)의 『자연의 메트로폴리스』에서 서술한 장소의 변화나 렐프가 『장소와 장소상실』의 핵심 주제로 제시한 무장소성을 설명하기 위해 ‘장소 침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다(크레스웰, 2012: 65~71).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쓰리프트(Thrift)는 가짜 장소들에 의한 진정한 의미의 장소를 잠식시키고 소멸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즉 “장소는 ‘격렬한 무대’로서 이동, 속도, 순환의 흔적이다. 아마도 어떤 이들은 ‘대부분의 장소’에 대한 이같은 묘사를 ... 보들리아르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삼류 시물라크르의 세계로 읽을 것인데, 이 세계에서는 잠식해 들어가는 가짜 장소들이 마침내 장소를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Thrift, 1994: 212~213; 크레스웰, 2012: 77 재인용).

이와 같이 관련된 여러 용어들을 사용하여 장소 상실을 논의할 수 있지만, 장소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장소 상실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예로, 두 가지 상이한 유형의 공간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거나 또는 한 장소에 혼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역(鬮)공간의 개념을 들 수 있다. 이 용어의 영어 단어(liminal space)가 가지는 의미를 그대로 번역하면 문지방 공간, 또는 사이 공간을 뜻한다. 쥬킨(Zukin, 1991)은 역공간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문화와 경제, 시장과 장소 등을 가로지르고 결합하는 공간”으로 규정한다. 예로, 오늘날 대도시들에서 자본이 소유, 통제하는 사적 공간인 대형 백화점이나 서점 등의 출입구가 공적 공간인 지하철 통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때로 그 경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민자역사(驛舍)의 경우, 그 소유권은 국가에 이전되지만, 민간기업에 임대, 운영된다는 점에서 역사의 장소 자체는 공적/사적 구분이 불가능한 혼종적 공간이다.

이러한 역공간은 특정 장소가 가지는 공간적 기능들, 즉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간의 구분을 붕괴시키고 이들 간 연속적 또는 혼성적 속성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역공간은 궁극적으로 공적 공간을 잠식시키고 사적 공간에 의해 편입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장소의 혼성적 속성은 만자 역사처럼 사적 공간이 공적 공간과 함께 조성됨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 외에도 사적 공간에 공적 문화적 기능을 이식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다. 예로, 대형 서점들은 책을 판매할 뿐 아니라 고객들의 독서와 휴식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사적 경제와 공적 문화를 결합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역공간의 적절한 설계, 건설, 운영은 오늘날 대도시의 공간 활용에 활력을 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예로, 조경진·한소영, 2011), 또한 공적 공간으로서 장소의 의미를 침식시키고, 사적 공간에 의해 지배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의미에서 장소 상실을 촉진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장소 소외의 개념화

1) 소외에 관한 기존 개념에서

현대 도시공간에서 장소와 관련된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리학 및 관련 학문 분야들에서 장소는 상당히 전통적인 주제이고, 장소 상실은 다소간 진부한 주제인 것처럼 치부된다. 그러나 장소 상실에 관한 다양한 개념적 논의와 경험적 사례 연구들은 무장소성이나 장소 전치 등으로 인해 도시인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가는 살펴보는 한편, 현대 도시에서 장소가 왜 파괴되고 장소성이 사라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 규명에 관심을 둔다. 이러한 연구들 대부분은 장소 상실의 구조적 배경으로서 자본주의적 경제 및 정치체제, 그리고 이로 인해 상업화되고 이데올로기화된 문화와 의식의 문제를 비판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장소(상실) 연구는 오늘날 대도시가 처해 있는 사회공간적 위기를 진단하고, 나아가 미래의 삶과 그 삶을 전망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룬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장소(상실)에 관한 기존 논의들은 다양한 개념이나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관련 주제에 관한 상이한 측면들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키고 종합하려는 시도는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장소(상실) 연구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이론체계를 발전시키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예로 지리학에서 장소(상실)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상당한 관심을 끌어왔지만, 대체로 인간주의적(특히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장소의 규범적 속성과 장소 상실의 문제점을 규명하는 정도였다. 그 이후 장소의 개념과 관련된 크고 작은 논쟁들이 있긴 했지만, 연구의 관점을 정치경제학이나 포스트모던 사회이론으로 확장하지 못했다. 그러나 장소 상실에 관한 연구는 분명 이러한 관점이나 이론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서, 기존의 장소 상실 연구들을 종합하고, 연구의 관점과 이론적 기반을

확장하기 위하여, 장소 상실에서 장소 소외로의 개념적 전환이 요청된다.

장소 소외는 장소 상실과 관련된 최근 논의에서 간혹 등장하는 용어이지만, 아직 정형화된 개념은 아니다.⁵⁾ 예로, 렐프(2005: 292)는 오늘날 ‘무장소는 필연적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작 장소와의 의미 있는 관계가 사라져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서술한다. 여기서 ‘장소와의 의미 있는 관계가 사라져 가는 것’은 분명 장소 소외를 의미한다. 그러나 렐프는 하이데거의 이론에 준거하여 장소 상실을 논의하면서도 그의 소외 개념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크레스웰(2012: 71)은 렐프가 장소 경험에 관한 연구가 장소 소외와 관련된다는 점을 언급하지만, 전반적으로 장소 상실에 관한 연구들이 장소 소외를 개념적으로 함의함에도 불구하고 장소 소외 자체를 개념화하거나 이를 드러내기 위해 명시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장소 소외’를 개념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이에 관한 명시적 논의도 매우 드물다. 하지만 소외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기존의 철학 및 사회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논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소외란 유기적 관계를 가지는 어떤 것(개인, 집단, 사회, 사물, 자연 등)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거나 배제된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나 좀 더 학술적 의미로, 소외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상품, 화폐, 제도 등)이지만 자신에 의해 통제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는 낯선 힘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예로 일상생활의 소외에 관한 연구에 생애를 받쳤던 르페브르(Lefebvre, 1991: 249)는 소외란 “벌거벗겨져 그 자신의 바깥으로 내쫓긴 인간이 어떤 힘, 사실 인간에서 시작했지만 인간으로부터 벗어나 탈인간화

5) 예로, Diaz-Parra(2020)는 스페인의 세비아(Seville) 지역을 사례로 과잉관광(overtourism)으로 인한 장소 소외의 문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를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장소 소외는 장소 전치의 느낌, 또는 현재 [숙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 소속감을 발전시킬 수 없는 무능력으로 특징지어”지며, “젠트리피케이션, 장소 전치, 장소 소외는 사회적 부정의를 초래하는 사회-공간적 과정들과 뒤얽혀 있다”고 주장된다(Diaz-Parra, 2020: 4).

된 힘의 자비에 내맡겨져 있는” 상황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소외의 개념은 사회의 모든 부문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부문들에도 적용되며, 철학적 사유 자체도 인간의 보편적 소외의 일부로 간주되거나, 나아가 인간 자체는 소외된 존재로 규정되기도 한다. 이처럼 소외는 인간 생존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 가운데 하나이며, 사회체제의 유형이나 특정한 구조적 배경과는 무관하게 초역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보다 좁은 의미로 소외는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정치체제 또는 근대 사회에서 만연한 정신적인 불안의 일종으로 이해될 수 있다(Sayers, 2011). 소외에 관한 철학적 전통은 크게 마르크스주의와 실존주의로 구분되며, 이들은 각각 소외의 사회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 소외의 양상들은 사회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이 결합된 상태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Jaeggi, 2014).⁶⁾

이와 같은 전통적 철학 및 사회이론에서 제시된 소외의 개념을 장소 소외의 개념화에 원용하면, 장소 소외란 인간이 자신의 생존과 생활을 위해 유기적 관계를 가지는 장소로부터 분리되거나 배제된 상황을 의미한다. 특히 장소 소외란 인간 자신이 만들어낸 장소가 탈인간화된 힘에 의해 지배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과정과 이로 인한 심리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장소 소외의 개념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장소란 인간이 만들어 낸 것, 즉 장소는 물질적으로, 상징적으로 인간에 의해 생산(또는 구성)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⁷⁾ 또한 장소 소외의 개념은 인간이 탈인간화된 장소에 의해 억압되고 불안

6) 이러한 점에서 하비(2014: 267)는 소외를 재산권의 법적 양도나 사회적 관계에서 정체성의 전환과 관련되며, 또한 수동적 및 능동적 심리 상태로 어떤 가치 있는 연결 상태의 단절로 인한 고립감, 상실감, 억압감 그리고 이에 따른 적개심의 표출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았다.

7) 장소(성)는 외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회구성주의적 관점뿐 아니라 인간주의적 지리학자들이나 공간의 생산에 관한 르페브르적 주장에서도 제시된다. 예로 하비는 “공간이나 시간과 마찬가지로 장소도 사회적 구성물이며, 따라서 그렇게 읽히고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하비, 1995: 64).

정한(사회적 및 심리적)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장소 자체가 탈인간화된 힘이 되거나(즉 비장소의 개념에 함의된 것처럼) 또는 장소가 탈인간화된 힘(즉 정치, 경제적 힘과 이에 의해 작동하는 공간 메커니즘)에 의해 지배됨을 의미한다.

장소 상실에 관한 기존 논의들(특히 인간주의적 지리학에서의 논의)은 하이데거 등 주로 실존주의적 철학에 의존했다면, 장소 소외의 개념화를 위해 헤겔-마르크스로 이어지는 전통에서 소외가 어떻게 이해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헤겔은 소외를 인간의 정신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외화(또는 대상화)된 상태를 의미(즉 자기소외)하며, 특히 사회적으로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을 대상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소외 개념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마르크스의 초기 저작, 대표적으로 『경제학·철학 수고 1844』에 비판적으로 계승되면서, 헤겔의 관념론에서 유물론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 노동자가 자신이 생산한 생산물을 통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들과 적대적 관계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뜻하게 되었다(Marx, 1975: 324). 나아가 소외된 노동은 자신의 생산물로부터 소외될 뿐 아니라 이 생산물을 생산하는 노동과정으로부터, 또한 그가 생산하기 위하여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연과 다른 인간들로부터, 그리고 결국 인간의 자기소외로서 인간 본성(즉 유적 존재)으로부터 소외를 초래한다고 주장된다(*ibid.*: 324~334).

마르크스의 초기 저술에서 핵심 주제로 제시되었던 소외의 개념은 그러나 그의 후기 저작에서는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논의에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그는 물신성(*fetishism*)이라는 개념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 화폐, 자본 등이 가지는 속성을 설명하고자 한다.⁸⁾ 상품 물신성이란 상품은 노동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의미

8) 마르크스의 초기 저술과 후기 저술 간 관계, 특히 그의 논의에서 소외와 물신성의 연계성은 오랜 논쟁 주제들 가운데 하나로, 이 주제를 포함하여 마르크스의 소외 개념에 관한 논의의 진행 과정에 관하여, 무스토(2011) 참조.

한다. 나아가 상품 물신성은 한 개인의 노동이 다른 사람들의 노동과 연계되는 관계가 사람들 간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이들 간의 물적 관계 또는 사물들 간 사회적 관계로 나타나는 상태를 서술한다(Marx, 1976: 63). 이러한 물신성의 개념은 루카치(2015)가 제시한 물화의 개념과 연결된다. 물화(reification)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상품화되어 물적 성격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사람들 간의 관계가 사물들 간의 물적 관계로 나타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물신성 및 물화의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물이 생산자로부터 소외되어 독립적인 힘으로 신비화되어 나타나는 현상과 관련된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소외 개념 및 물신성과 물화의 개념을 장소 소외의 개념화에 반영하면, 장소 소외란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노동을 통해 장소를 생산하지만, 자신이 생산 또는 구성한 장소를 통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장소로부터 지배되고 억압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나아가 노동 소외의 4가지 유형과 관련 지워 보면, 장소 소외는 한 개인이나 집단이 장소를 만드는 사회적 활동 과정에서 소외되고 또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사람들 및 자연(환경)과의 관계에서 소외되며, 나아가 유한한 인간에게 부여되는 장소의 존재론적 안전감으로부터 소외되는 상태를 포괄한다.

그리고 물신성과 물화의 일반 개념을 장소 개념에 원용하면, 장소의 물신성은 장소를 구성하는 사물들이 상품화될 뿐 아니라 장소 자체가 상품화됨에 따라 장소가 그 자체적으로 마치 어떤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을 말한다. 예로, 특정 장소에 부착된 토지나 건축물뿐 아니라 장소가 가지는 분위기의 판매를 강조하는 장소 마케팅의 개념은 전형적으로 이러한 장소 물신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⁹⁾ 또한 장소 물화는 현대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9) 장소 물신성의 개념은 실증주의적 공간 개념 및 공간과 사회 간 관계에 관한 논의에서 거론되었던 ‘공간 물신성’(spatial fetishism), 즉 공간이 사물이나 사회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어떤 특성을 가지는 것처럼 간주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도 관련된다. 예로 Soja and Hadjimichalis

장소들에서 사람들이 마치 사물처럼 인식되고 사람들 간 관계가 사물들 간 관계처럼 변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장소 물화와 이를 통해 장소 및 사회적 관계의 통제는 예로 비장소에 관한 오제의 설명에 흔히 함의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비장소에서 사람들 간의 소통적(인격적) 관계는 사라지고 개별화(원자화)된 사물로 간주되며, 권력은 이러한 장소 소외를 통해 대상화된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통제하고자 한다.

2) 장소에 관한 기존 개념에서

장소 소외의 개념화는 기존의 철학적, 사회이론적 논의에서 제시된 소외의 개념에서 유도될 수 있지만, 장소에 관한 기존 개념 규정에서부터 장소 소외의 개념을 도출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안적 방식은 장소 소외를 개념화하기 위한 논의를 보다 창의적이고 풍부하게 할 것이다. 지리학 및 관련 학문 분야들에서 기존의 논의들은 장소(그리고 장소 상실)를 다양하게 규정하지만 대체로 장소 자체를 개념화하고자 했다. 하지만, 애그뉴(Agnew, 1987)는 장소를 몇 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정의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장소 소외의 개념화에 매우 유의하게 원용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장소는 기본적으로 3가지 요소들, 즉 위치(site), 로케일(locale, 현장), 그리고 장소감으로 구성된다. 장소 소외는 장소를 구성하는 이러한 3가지 구성요소들에 함의된 문제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장소를 구성하는 한 요소는 지표면의 일정한 좌표를 뜻하는 위치 또는 입지이다. 오늘날 특정 지점으로서 위치를 물리적 또는 객관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흔히 절대좌표가 이용되지만, 장소를 구성하는 위치에서 좌표는 상대적 위치 또는 관계적 위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여기서 위치는 장소와 다른 장소

(1979) 참조. 상품 물신성에 관한 지리학적 논의에 관해서 Castree(2001) 참조.

들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며, 나아가 장소와 사람 또는 사물과의 관계성을 함의한다. 장소는 그 자체로 존재하거나 고유한 속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사물과의 관계(제)형성을 통해 생성, 유지, 변화, 소멸된다. 예로 어떤 물건을 놓을 때 또는 옮길 때,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 둘까요’ 또는 ‘이것을 어디로 옮길까요’라고 표현한다. 이처럼 위치란 ‘어디’, 즉 사물이 있는 장소로서 ‘(제)자리’를 의미한다(크레스웰, 2012: 11).

이러한 사물의 자리로서 장소의 개념에서, 우리는 장소 소외를 사람이나 사물이 제자리에 있지 않는 상황 또는 장소와 사람 또는 사물의 관계성이 분리되거나 단절된 상황으로 규정할 수 있다. 즉 장소 소외는 장소 착오의 개념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던 ‘제자리를 벗어나’ 있으며 이로 인해 ‘위반’(transgression)을 범한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장소 소외는 장소 전치의 개념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사람이나 사물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동되어 유기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소멸된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장소 소외로 인해, 사람이나 사물, 또는 어떤 활동이 제자리를 혼돈하거나 이탈하여 사회공간적으로 위반을 범한 것으로 제재될 경우, 또는 이들이 자신들의 자리로부터 강제적으로 내몰리게 될 경우, 이들은 자신이 장소로부터 소외되었음을 자각하고,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점점 더 강하게 저항하게 될 것이다.

애그뉴에 의하면, 장소를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는 로케일(현장)이다. 로케일로서 장소는 물리적 환경 및 사회적 구조를 배경으로 행위자들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상호관계가 구성되는 무대(setting)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어떤 활동이나 사건이 전개되는 곳이라기보다 자연적, 사회적 힘에 의해 조건들(제약 조건들뿐 아니라 가능성의 조건들)이 작동하면서, 그 힘이 행위자들의 실천과 결합하여 즉시적으로 실현되는 장소이다. 이 개념은 구조화 이론으로 잘 알려진 기든스(1991)가 제시한 용어로, 구조의 이원성이 작동하는 장, 즉 인간 활동과 이를 조건 짓는 구조적 과정이 즉시화되는 장소라는 점에서 ‘현장’으로 번역될 수 있다.¹⁰⁾ 또한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로컬리티(locality) 개념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로케일 또는 현장으로서 장소와 관련하여, 장소 소외는 구조적 힘(메커니즘)의 지배로 인간의 주체적 행위성이 상실되고 구조에 의해 행위가 지배되거나 왜곡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장소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실천적 행위와 이의 구조적 힘(자본과 권력)이 결합적으로 작동하며 이로 인해 항상 긴장과 모순이 가득 찬 곳으로 이해되어야 하지만, 특히 장소 소외의 개념은 정치경제적으로 구조화된 힘 또는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힘(예로, 가부장적 사회에서 젠더화된 힘)이 기능적으로 강력하게 작동하는 장소들과 관련된다. 또한 이러한 장소 소외의 현상들은 비장소에 관한 논의에서 흔히 거론되는 백화점이나 역, 공항 등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거나, 역공간에 관한 논의에서처럼 사적 공간과 연결되고 이에 의해 침식되거나 혼합됨으로써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 공적 공간으로서 특정 장소들과도 관련된다, 나아가 사실 오늘날 대도시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장소들은 자본과 권력의 구조적 힘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러한 유형의 장소 소외 양상들이 만연해 있다고 하겠다.

장소를 구성하는 세 번째 요소인 장소감은 사람들이 한곳에 오래 살아감(거주함)에 의해 형성된 주관적 지향과 관련되며, 장소 애착, 장소 정신 등으로 개념화된다. 나아가 이러한 장소감이 사회화함에 따라 장소성이 형성된다. 장소감 또는 장소성은 정태적이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발전, 변화 또는 소멸하며, 때로 다른 장소성으로 대체된다, 이러한 장소감에서 감정(sense)의 개념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최근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는 정동(affect)의 개념을 바탕으로 장소를 재해석해 볼 수 있다.¹¹⁾ 즉 장소

10) 애그뉴(Agnew, 1987)는 당시 기든스(Giddens)의 구조화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장소와 정치 간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지만, 기든스가 지리학에서 주요하게 논의되는 장소 개념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로케일이라는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애그뉴의 서술에 의하면, “장소는 단지 어떤 활동이나 사회적 상호행위를 위한 무대로서 로케일(locale)일 뿐 아니라 입지(location)이다. 사회적 관계의 재생산과 전환은 어딘가에 자리(place)를 잡아야 한다”(Agnew, 1987: 27).

감에서 감정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주관적 상태와 관련되지만, 정동은 외적 환경이나 타자에 대한 신체적 작용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점에서 장소는 외적인 물리적 사회적 환경과 신체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관계로 형성되는 정동의 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장소 감정에서 장소 정동으로의 전환 또는 개념적 재구성은 장소 소외에 관한 연구에도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감정과 정동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정동은 초개인적이고 비재현적인 반면, 감정은 이러한 정동이 주관화된 상태로 규정된다. 정동은 최근 철학 및 사회이론 전반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는 개념들 가운데 하나로, 특히 지리학자인 스리트프가 제시한 비재현 이론은 기본적으로 정동의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는 오늘날 “정동은 활력적인 도시의 한 요소로서 도시 전체에 편재해 있다. 도시에서의 활동은 저마다 장소를 정동적 색조로 물들이는 정동적 등록 과정을 수반한다”고 주장한다(Thrift, 2004). 스리트프에 의하면, 도시(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장소들)에서 정동의 형성과정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첫째 정동의 형성과 이동에 관한 지식은 일상적인 도시 경관의 일부로 통합되어 있으며, 둘째 이러한 지식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전개되며, 셋째 정동은 도시[의 장소들]를 직관적이고 창조적으로 이해하는 방식들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 제시된다(신진숙, 2019 참조).

장소 감정 또는 장소 정동과 관련하여, 장소 소외는 인간(신체)과 장소 간에 형성된 정서적 감정(애착)이나 정동이 소멸 또는 약화되고 이로 인해 장소에

-
- 11) 장소감(sense of place)에서 sense는 흔히 감정으로 번역된다. 하지만 sense는 일반적으로 감각(외적 자극에 대한 신체적 반응)을 의미하며 그 연장선에서 감성(sensibility), 즉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이해된다. 감정의 영어 단어는 emotion으로, 감성을 통해 받아들여진 외적 자극에 대해 무의식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세포(의 화학적) 반응을 의미한다. 파일(Pile, 2010)에 의하면 지리학자들은 다양한 배경에서 매우 넓게 감정을 서술하고 있다. 본디(Bondi, 2005)는 지리학에서 이러한 감정에 관한 논의들을 3가지 갈래(인간주의 지리학, 페미니스트 지리학, 비재현의 지리학)로 정리하면서, 인간주의 지리학의 많은 연구들은 장소와 인간 생활의 감정적 질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감정에 관한 연구의 또 다른 갈래로 비재현 이론과 정동의 지리학을 분류한다.

대한 진정한 태도와 이에 근거한 정체성이나 안전감이 상실되거나 무력화되어 불안과 불만이 고조된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장소 소외와 관련된 양상들은 장소 상실, 특히 무장소감과 관련된 논의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로 크레스웰(2012: 71)은 렐프의 무장소성에 관한 논의에서, 장소에 속하지 못하는 “실존적 외부성은 장소로부터의 소외와 관련 있는데, 실존적 내부자로부터 나오는 무의식적인 소속감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서술한다. 또한 사회공간적(도시적) 정동과 관련하여, 장소 소외는 장소의 비재현적 정동 또는 이를 표현하는 느낌이나 감정이 배제되거나 무시되는 상황 또는 이로 인해 유발되는 딜레마 상황으로 이해된다.¹²⁾

이와 같이 장소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들과 관련하여 개념화된 장소 소외는 각 요소들과 관련된 3가지 유형으로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에 관한 사례는 장소 상실에 관한 기존 논의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예로 “지구화의 힘이 지역의 문화를 침식하고, 동질화된 지구적 공간을 생산하게 되면서, 장소감의 상실”이 초래되었다는 크레스웰(2012: 12)의 진술은 장소 구성의 3가지 요소들을 상호연계시켜 장소 소외의 함의를 서술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지구화의 힘에 의한 지역 문화의 침식’은 로케일로서 장소의 관점에서 구조적 힘에 의한 장소 침식을 의미하며, ‘동질화된 지구적 공간의 생산’은 사람이나 사물들이 가지는 (제)장소의 특이성(구체성)의 소멸로 해석되며, 이로 인해 장소에 대한 규범적 감정이나 정동이 상실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장소 상실에 관한 연구들은 장소 소외에 관한 기본 요소들을 담고 있지만, 소외와 관련된 철학적 논의나 비판적 사회(공간)이론들과 제대로 연결시키지 않은 채, 체계화된 이론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12) 소외와 감정 또는 정동 간 관계에 관한 논의로, Burkitt(2019), TenHouten(2019) 참조. 도시(장소)와 직접 관련된 연구에서 ‘정동 소외’(affective alienation)에 관한 논의로 문규민(2021) 참조.

비장소에 관한 오제의 논의도 장소 소외의 개념과 직결된다. 그에 의하면, 비장소는 개인들의 특이성이 사라지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상의 공간이다. 현대 도시에 범람하는 비장소들에서 황망하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인들은 모두 비슷한 얼굴로 유사성만 있을 뿐이고, 서로를 응시하는 행위는 또 다른 자신을 바라보는 것일 따름이다. 이처럼 “비장소에서 맞닥뜨리는 고독의 얼굴과 목소리들이 훨씬 절망적이게 느껴지는 것은 그것이 다른 수백만 명의 소리와 얼굴들을 반향하고 있기 때문”이다(오제, 2017: 103). 즉 비장소에서 사람들은 특정한 공간을 함께 이용하면서 물리적으로 근접해 있지만, 이 공간은 소통의 부재, 관계의 부재, 공동 정체성의 부재 등으로 특징지어지며,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추상적이고 비매개적인 관계를 가질 뿐이다. 요컨대 비장소는 인간적인 장소가 될 수 없는 사물들의 공간이다. 이러한 비장소에 관한 서술을 장소 소외 및 장소의 물신성이나 물화 개념과 연계시킨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소에 관한 비판적 논의는 훨씬 체계적으로 이론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장소 소외의 개념은 장소 상실에 관한 기존 논의들에서 찾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소와 소외 개념에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관심을 가진 거대 이론가들의 저술들에서도 함의되어 있다. 사실 지난 20~30년 동안 이른바 ‘공간적 전환’의 분위기 속에서 거대 이론가들이나 철학자들의 저술들에 함의되어 있는 공간적 사유가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다(크랭·스리프트, 2013 참조). 이러한 공간적 전환에 관한 논의에서 간과한 점으로, 여러 철학자 및 사회이론가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한 공간의 개념이나 이론은 계몽적 근대성이나 자본주의 경제정치체제의 발달과 관련된 추상적 공간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탈소외된 새로운 장소 개념을 추구했다는 점이다.

다음 절에서 논의할 것처럼, 공간적 전환과 관련된 많은 학자들 가운데 하이에커와 아렌트, 벤야민과 세르트 등¹³⁾의 저술들에는 보다 명시적으로 장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공간적 개념들과 장소의 소외 및 탈소외와 관련된 실천적 방

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철학 및 사회이론 전반에 영향을 미친 거대 이론가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이론이나 주장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전제되지만, 특히 장소 및 소외의 개념을 핵심적 논제로 설정하고, 소외의 개념이 어떻게 공간 또는 장소의 비판과 대안의 모색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자들의 연구에서 공간이나 장소에 관한 논의들은 지리학이나 공간 관련 학문분야들에서 사용되는 의미나 개념을 훨씬 넘어선다. 또한 이들은 공간 및 장소와 관련된 다양한 은유적 개념이나 전략들, 예로, 거주하기, 캠프(강제수용소), 판타스마고리아(환등상), 산책자, 도시에서 걷기 등을 제시한다. 이들의 연구와 주장에서 핵심적 논제로 제시된 이러한 개념들은 공간적 함의와 더불어 소외/탈소의 실천과 관련된다.

4. 장소 소외와 탈소외의 이론들

1) 존재 조건으로서 장소의 소외와 거주하기: 하이데거와 아렌트

서구 철학의 한 축을 형성하는 실존 철학의 대표적 사상가로서 마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존재의 의미’를 추구하면서, 시간성(즉 죽음을 향한 존재)에 우선성을 두었지만, 존재의 공간성 또는 근원적 장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두었다(정은해, 2001). 그는 존재의 의미를 묻는 인간 존재자를 존재가 드러나는 ‘거기’(터, Da)의 ‘열려 있음’을 본질로 하는 자, 즉 현-존재(Da-sein, Being-there, 터-있음)로 규정한다. 즉 단순히 공간 속에 있는 존재, 즉 내-존재(Being-in)와는 달리, “현존재 그 자체는 자신의 ‘공간-내-존재’(Being-in-space)

13) 이 논문의 처음 구상단계에서는 이들 외에도 푸코, 들뢰즈, 르페브르, 하비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논문 분량의 한계로 이들의 거대 이론들에서 소외와 탈소외에 관한 논의를 최소한으로 축약하기가 어려워 여기서는 생략했다.

를 가진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세계-내-존재(Being-in-the-world)의 기반에서만 가능하다”(Heidegger, 1962: 82 & 134). 만일 인간 현존재가 없다면 존재자의 존재도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인간이 ‘터’의 존재로서 근원적으로 공간적이지 않다면, 존재가 드러나는 공간(또는 자리)이 마련될 수 없다(이유태, 2013: 244). 하이데거에 의하면 현존재가 공간적인 것은 사물의 고유한 ‘자리’를 정해주기 때문이며, 또한 이러한 자리 정함을 위해 ‘구역’(region; Gegend)이라고 불리는 공간을 열어두기 때문이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의 공간성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유형의 존재 방식, 즉 눈앞에 있음(present-at-hand)과 손안에 있음(ready-to-hand)을 구분한다(Heidegger, 1962: 135). ‘눈앞에 있음’은 때로 객관적 존재로 번역되며, 이는 데카르트의 세계 및 공간 개념처럼 ‘연장’으로서 공간, 즉 사물과 분리된 공간 개념과 관련된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존재 및 공간 개념을 거부하고, ‘손안에 있음’과 관련시켜 공간을 이해한다. ‘손안에 있음’은 흔히 도구적 존재(또는 用在者)로 번역되며, 이것의 공간성은 이것이 장소들의 총체성 속에서 어떤 한 장소에 도구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말한다. 손안에 있는 존재는 우리에게 가까이 있음을 뜻하며, 이는 물리적 거리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이를 얼마나 필요로 하며,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가라는 점에서 가까이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 개념과 더불어 세계-내-존재의 공간성을 설명하기 위해, 하이데거는 망치질이라는 도구 사용을 사례로 예시한다.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망치를 사용한다. 망치라는 “도구는 그의 자리(즉 장소)를 가지며... 이는 어떤 공간적 위치(position)에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것과는 구분된다. 이러한 망치의 사용은 우리가 의자를 만드는 데 기여하며, 나아가 우리 또는 다른 누군가가 이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한다. 우리가 망치질을 위하여 망치를 사용하고, 앉기 위해 의자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상호관계의 연관으로서 세계가 구성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등장하는 세계는 의미 있는 관계들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세계의 연관 속에서만 망치는 ‘망치질을 위한’ 어떤 것으로 존재하며, 오직 이러한 연관에서 세계는 그렇게 이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망치나 의자는 이러한 상호관계의 연관 속에서 자신의 자리 즉 장소를 가진다. “무언가를 또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한 도구가 그 장소를 가질 때, 이 장소는 이 도구의 장소로 규정된다. 이는 서로 방향적으로 연계된 장소들의 총체성에서의 한 장소이고, 환경적으로 손안에 있는 도구의 연관에 속하는 장소이다”(Heidegger, 1962: 136).

어떤 사물의 장소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존재자들이 맺고 있는 관계 전체로부터 규정된다. 또한 이러한 존재자들의 전체 연관 관계 또는 존재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영역을 포괄하는 용어로 하이데거는 ‘구역’이라고 지칭한다. 인간을 지칭하는 현존재의 공간성은 물리적, 수학적 공간만으로 설명할 수 없고, 또한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존재 방식인 손안에 있음(즉 자리와 구역)만으로도 온전히 규정되지 않는다.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공간성을 보다 특정적으로 ‘거리 없음’(de-severance)과 ‘방향잡음’(directionality)에 근거해서 설명한다(Heidegger, 1962: 139). 거리 없음은 현존재와 사물을 “가까워지게 만드는 일”을 의미하며, 현존재는 이를 통해 사물들과의 관계에서 자리를 정하고 자신도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방향잡음은 주변을 둘러보고 배려하여 손안에 있는 존재자들이 구역 내에 자리를 잡도록, 즉 적소를 허용하는 것이다.¹⁴⁾

하이데거의 전기 연구에서 장소는 존재의 실존적 근원으로 이해된다면, 그

14) 김동훈(2011: 19~20)에서 제시된 사례로, 커피 한잔을 마시면서 오후의 창가 책상 앞에 앉아 독서하는 상황을 두 가지 방식으로 묘사해 볼 수 있다. 눈앞에 있음의 방식으로 설명하면, 커피의 원료와 이에 들어간 우유나 설탕의 무게를 측정하여 적당한 맛을 내고, 커피잔과의 거리나 나의 눈과 책까지의 거리 등을 측정하여 적당한 거리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측정하고 물건들을 배치한다고 해서 상황 설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손안에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면, 커피를 마시는 것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고 내용을 음미할 수 있도록 하며, 책상을 창가에 두는 것은 밝은 곳에서 책을 읽으며 창밖 하늘을 보며 명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커피, 책, 책상, 창문, 하늘,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책 읽는 사람의 공간적 배치와 관계를 통해 하나의 구역이 만들어진다. 이처럼 어떤 상황은 각 사물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각자의 자리를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 후기 연구, 예로 ‘건립 거주 사유’에서 장소는 사물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거주하기란 단순히 일상적 의미의 거주라기보다 그 이면에 은폐되어 망각된 본질적 존재 의미와 관련된다. 즉 거주함이란 “죽을 자들이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장소란 “존재의 진리가 그때그때마다 생기는 열린 터전”으로 해석된다(하이데거, 2008: 189). 하이데거는 이러한 근원적인 삶의 장소를 열어놓는 행위로서 건립하기와 거주하기의 사례로, 흑해 삼림지역 슈바르츠발트의 한 농가를 묘사하면서 이러한 거주함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하이데거의 사유에서, (장소) 소외는 2가지 맥락에서 이해된다(Jaeggi, 2014). 첫째 “소외는 현존재를 그 자신이 아닌 어떤 실체로 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현존재를 비진정성”으로 몰아넣는 상황으로 이해된다(Heidegger, 1962: 222). 이러한 상황은 현존재가 군중, 또는 하이데거의 용어로 ‘세인’(they; Das Man)의 일상적 존재 방식으로 ‘퇴락’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를 장소 소외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일상생활의 세인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터’로서도 그곳은 없으며, 터(즉 근원)의 상실로 인해 자신을 확인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우리가 세계 내에 있는 어떤 사물들을 ‘손안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이들을 실천적 연관으로부터 떼어내거나 우리가 세계 전체를 우리와는 분리된 것, 즉 대상으로 주어진 것처럼 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이는 우리가 세계의 실천적 공간성 바깥에서 행동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세계 속에서 맺어져 있는 장소들 간의 관계와는 무관한 것처럼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손안에 있는 것의 세계성은 박탈당하고, 공간은 “연장된 사물들의 연관”, 즉 물리적 동질적 공간으로 나타난다(Heidegger, 1962: 147).

하이데거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장소 소외의 개념은 장소 상실에 관한 논의에서 흔히 인용되는 집 없음(그리고 뿌리뽑힘)으로써 고향 상실 또는 (거주 즉 존재) 공간의 망각과 관련된다. 그는 이미 『존재와 시간』에서 소외를 존재 근원의 상실, 즉 ‘무근거성’ 또는 ‘집 없음’(homelessness)으로 이해한

다. 집은 실존적으로 현존재의 존재 근거를 의미하며, 소외는 현존재의 존재 근거의 상실, 즉 집없음으로 이해된다. 그의 후기 연구, 특히 『건립 거주 사유』에서 소외는 집없음 또는 고향 상실, 즉 존재 자체의 근거가 없음, 뿌리뽑힘 또는 삶의 근원에 가까운 곳의 상실을 의미한다. 하이데거의 연구에서 소외는 이처럼 장소의 상실을 직접 함의하지만, 전/후기 연구에서 그 의미와 배경은 다소 다르게 서술된다. 즉 전기 연구에서 집없음은 현존재의 퇴락으로 존재에 대한 이해 또는 접근을 이루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면, 후기 연구에서 고향 상실은 과학기술문명의 우월성에 빠져 인간이 거주할 자연을 정복함으로써 거주공간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윤병렬, 2007).

하이데거에 의하면 이러한 소외의 극복, 즉 탈소외는 현존재의 비진정성, 비진리, 퇴락을 뛰어넘는 것, 요컨대 이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탈소외로서 자유는 그 자신의 존재와의 관계를 허용하고, 타자와 함께하는 존재로서 존재하도록 하며, 자연과 도구들의 사용에서 그의 존재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현존재의 존재방식으로 특징지워진다. 자유는 현존재가 존재를 위한-잠재성(potentiality-for-Being)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의 근원(즉 존재의 터)를 열어가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하이데거의 후기 연구에서는 탈소외를 위해 집으로 돌아감, 귀향이 더 많이 강조된다. 고향으로의 복귀는 단순한 공간적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에 가까이 감, 또는 존재의 이웃으로 거주함을 의미한다.

존재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하이데거의 철학은 현대 실존주의 철학의 발달에 지대한 기여를 했으며, 공간/장소와 관련된 학문 분야에서도 인본주의적 관점의 성립을 주도했다. 그러나 그의 철학은 또한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이는 그의 소외 및 장소 개념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다. 공간/장소 개념과 관련해서도, 터(Da) 또는 거기(there)를 함의한 현존재의 개념이나 ‘공간 마련’으로 이해되는 세계-내-존재의 공간성은 인간과 사물의 존재론적 장소(근원)를 부각시켰지만, 세계 내에서 인간의 구체적인 사회공간적 실체이나 능동적인 사회공간적 편성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후기 저술에서 하이데거는 과

학기술의 발달과 이로 인한 거주(고향) 상실에 대항하기 위한 보다 능동적 활동방식으로 건립하기와 거주하기의 개념 등을 제시하지만, 현실의 주택 위기에 내재된 사회공간적 불평등에 관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없었고, 탈소외된 장소의 사례는 낭만적이거나 복고적인 장소로 되돌아갈 것을 요청하는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느낌을 준다.

한나 아렌트는 하이데거의 제자로, 한때 학문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같은 길을 걸었지만, 나치 정권하에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망명을 떠나면서 다른 길을 걷게 되었고, 이에 따른 경험은 세계관과 이를 반영한 학문적 사유에 차이를 드러내도록 했다. 이러한 차이로 흔히 지적되는 점으로,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퇴락된 일상 세계를 비본래적 존재방식으로 간주하면서 세인으로 구성된 공동의 세계를 부정한 반면, 아렌트는 인간이 말과 행위를 통해 형성된 공동 세계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발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세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하이데거는 존재의 근원으로서 장소를 추구한 반면, 아렌트는 현실 세계에서 인간의 삶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장소를 추구했다. 이러한 아렌트의 연구에서 공간 및 장소에 관한 용어들이 빈번하게 사용될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아렌트의 저술은 인간 조건의 공간적 차원에 관한 일종의 분석들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묘사된다(Debarbieux, 2017: 352).

아렌트는 그의 역작 『인간의 조건』(1996)에서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 준거하여,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고, 나아가 인간 실존의 세 가지 조건과 이에 조응하는 활동의 실행 장소에 관해 다루고 있다. 그에 의하면, 공적 영역이란 개방된 공동의 영역이며, 누구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가지며, 또한 모두에게 공동의 것인 세계 그 자체를 의미한다.¹⁵⁾ 사적 영

15) 아렌트는 공적 영역(또는 공적 공간)을 지구 또는 자연(의 공간)과 구분하여, 인간이 만든 인공품과 연관시키며, 인위적 세계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이해한다. 즉 “세계에서 함께 산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탁자가 그 둘레에 앉은 사람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듯이 사물의 세계도 공동으로 그것을 취하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아렌트, 1996: 105).

역이란 사적 몫을 의미하는 소유의 영역이며, 인간의 기본적인 생명 활동이 보장받고, 기본적인 안전감을 느낄 수 있는 자신의 장소를 뜻한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관한 이러한 구분은 고대 도시국가의 폴리스(polis) 대 오이코스(oikos), 또는 정치 대 경제와 단순히 조응하는 것으로 비판되기도 하지만(예로, 네그리와 하트, 2014: 254~256), 이러한 구분은 3가지 유형의 인간 활동 및 그 실행 장소에 관한 논의로 이어진다.

아렌트에 의하면, 인간이 실존하기 위한 조건으로, 첫째 하나의 생명체로 살아가야 하며, 둘째 자연의 필연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공세계가 있어야 하고, 셋째 말과 행위를 통해 이 세계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공동 세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실존의 조건들과 조응하는 활동 양식 및 장소의 유형으로, 노동(labor)은 생명 유지를 위한 물질대사를 통해 자연과 교류하는 활동이며 지구 및 자연환경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작업(work)은 비교적 영속적인 인공물들을 제공하는 활동이며, 인간과 그의 생산물들 간의 관계로 구성된 인공세계(즉 건조환경)에서 실행된다. 행위(action)는 사람들과 공동의 세계에 관해 논의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이들 간 관계로 구성된 공동공간 또는 사이공간(in-between), 즉 아렌트가 지칭한 ‘출현의 공간’(space of appearance)을 구성한다. 이러한 아렌트의 사유에서, 모든 유형의 공간은 각각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다는 점에서 장소의 개념을 함의하지만, 특히 행위 및 작업의 공간은 관계로 구성되는 장소로서 사이공간으로 이해된다.

아렌트는 인간 실존의 조건들과 관련하여 인간 활동과 이의 수행 장소들을 이해할 뿐 아니라 현대 인간이 직면한 이중적 소외, 즉 지구소외와 세계소외를 설명한다. 지구소외는 인간이 지구를 벗어나 우주 공간에서 새로운 거처를 찾고자 하는 시도처럼,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 아르키메데스의 관점에서 추상적 공간을 동원하고 자연을 객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소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세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됨에 따라 사물 세계와 공동세계를 상실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세계소외의 과정에서, 모든 활동을 자신의 이해관계로 환원시키려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

가 등장하며, 이러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소외된 활동으로 인해 세계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로 인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모두 몰락하게 된다(양창아, 2014). 세계소외는 결국 아렌트가 개념화한 작업 및 행위가 실현될 수 있는 장소가 소멸되게 되었음을 뜻한다.

소외에 대한 아렌트의 관심은 유대인(난민)으로서 직접 경험하거나 이와 관련된 공간적 사건들, 예로 나치 정권하에서 공적 공간에서의 억압과 이로부터 배제와 추방(장소 전치) 그리고 유대인 캠프(강제수용소)에 대한 인상, 나아가 전체주의화된 국민국가의 영토통치 문제 등을 반영한다. 아렌트(2006)에 의하면, 전체주의의 기원은 국민(민족)국가(nation-state)의 등장으로 소급된다. 민족국가는 영토 내 모든 거주자가 아니라 민족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며, 동일 민족에 속하지 않는 거주자들의 국적 박탈과 추방으로 이어지는 ‘반유대주의’와 ‘무국가성’(statelessness)의 비극을 유발했다. 무국가성은 집 없음(무거주성)의 근원일 뿐 아니라 세계 속의 장소 박탈을 의미한다(Debarbieux, 2017: 363). 나치 정권이 가동했던 강제수용소는 이러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극단적 실험실이었다. 캠프는 사람들을 가족과 친구로부터 분리시키고, 이들의 언어와 이동의 자유 등을 박탈하고, 상호행위와 출현의 공간을 말살하며, 결국 개인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인간 동물로 취급하여 죽임을 맞게 하는 극단적인 소외의 장소로 묘사된다.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논의한 지구소외와 세계소외를 극복하거나 이에 대한 대안적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모호하거나 미흡했다. 이와 관련하여 아렌트는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처럼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는 인간의 실존 조건과 인간 활동 및 장소의 유형, 그리고 이와 관련된 소외 개념 제시에 준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무국가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권리들을 가질 권리’(right to have rights)의 개념은 소외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권리를 가질 권리란 일차적으로 고향을 가질 권리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줄 정부(또는 정치체)를 가질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최병두, 2023). 이는 권리를

박탈당한 자들이 어딘가 소속될 수 있는 권리로서, 자신의 생존권과 인간적 삶을 위해 필요한 장소와 정치 공간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아렌트는 『혁명론』(2004)에서 전체주의적 민족국가의 대안으로 ‘평의회 체제’(council system)에 관심을 표방한다. 그는 근현대 역사에서 다양한 혁명들을 분석하면서, 이를 계기로 수립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정치체제로 정당 체제와 평의회 체제에 주목했다(양창아, 2014). 그에 의하면, 정당 체제에 근거한 대의민주주의는 결국 국민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대표자가 선출되거나 심지어 독재로 전락하기도 했다. 달리 말해, 대의제는 결국 국민의 정치적 소외와 더불어 물신화된 영토통치를 초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평의회체제는 사회정치적으로 권리를 억압 또는 박탈당한 사람들이 기득권에 저항하여 자율적 정치조직을 구성하고 직접 민주적 방식으로 통치하기 위한 정치체제를 말한다. 아렌트는 평의회가 단지 국지적 정치체제라기보다는 국민국가가 아닌 새로운 국가모델로 생각한다. 공적 영역의 개념에 기반한 이러한 평의회 체제는 국민국가와 대의제와 결합하여 등장한 근대정치체로부터 탈출하여 대안적 정치의 탈소외된 장소를 구축하고, 나아가 이러한 장소들이 연방의 원리에 따라 느슨한 연대체를 구성하는 방안으로 이어진다.

아렌트의 사유는 인간 삶의 실존적 조건과 이를 벗어난 파행적 역사에서 드러난 장소 소외와 이를 벗어나기 위한 대안적 장소에 관한 연구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사유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의문점으로, 우선 인간 활동의 범주 구분과 관련된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즉 그는 노동을 작업 및 행위와 구분하여 좁은 의미의 생물적 활동으로 한정하거나 또는 ‘노동하는 동물’의 승리를 부각시키면서, 이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노동’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다. 공간적 측면에서 보면, 노동의 장소는 지구와 관련되지만, 지구소외는 소외된 노동이 아니라 과학기술 발달의 부정적 결과와 관련되며, 소외된 노동이 세계소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행위’의 수행과 이를 위한 ‘공적 영역’(또는 공간)의 구성이 노동에 의한 필요 충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은 개념적으로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이는

현실 세계에서 경제와 정치가 각각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한다. 다른 한편, 전체주의적 국민국가의 등장으로 유발되는 국가 영토로부터 배제와 추방(즉 장소 소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권리들을 위한 권리’의 개념은 혁명 직후 나타나는 급진적 평의회 체제의 구축을 통해 실현되기보다는 기존 국민국가의 개방성 증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2) 물화된 도시와 탈소외를 위한 걷기: 벤야민과 세르토

발터 벤야민은 비극적인 삶을 살면서도 자본주의 문화와 도시에 관한 독창적 사유를 펼쳐 보인 사상가로 평가된다. 그의 저술에서 핵심적 논제들 가운데 하나는 19세기 말 산업 자본주의의 전환기에 서구 대도시들, 특히 당시 유럽의 수도로 불린 파리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근대성(modernity)과 관련지워 해석하는 것이었다. 그의 많은 저작들 가운데 특히 몽타주적 글쓰기의 전형을 보였던 『일방통행로』(1932), 유년 시절을 자전적으로 소묘한 『베를린 연대기』(1932),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짧은 생애 마지막 10여 년을 받쳤던 미완의 유고작 『아케이드 프로젝트』(Benjamin, 1999. 독일어: Das Passagen-Werk) 등은 대도시에 관한 그의 관심이 왜, 그리고 얼마나 지대했는가를 보여준다. 특히 『아케이드 프로젝트』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전체 분량의 약 3분의 1은 19세기 후반 파리에 관한 단편적 메모와 해석으로 구성되며, 그 외에도 발췌된 방대한 문헌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케이드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핵심적 주제는 두 가지로, 하나는 기술과 예술에 대한 이론이며, 다른 하나는 근대성에 대한 역사적 성찰이라고 할 수 있다(윤미애, 2011). 특히 후자에서 그의 중요한 관심은 아케이드(파사주)를 기본 사례로 서술한 근대 도시의 장소학(또는 지형학)이었다.¹⁶⁾

1930년대 벤야민이 19세기 후반 파리의 아케이드를 중심으로 연구한 것은 자본주의 도시의 전환기적 상황과 변증법적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아케이드와 이 상점들에 전시된 상품과 광고, 사진 등과 같은 사물들, 일반 대중과 산책자, 도박가, 창녀에 이르는 다양한 도시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사물이나 사람들의 장소로서 아케이드, 세계박람회, 실내 전시장, 도시의 거리 등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는 도시 공간에서 볼 수 있는 사소한 일상적 활동과 사물들을 통해 철학적 성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도시 장소들에 관한 수많은 단편들을 이어 붙이는 ‘몽타주 기법’을 통해, 이들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하지 않더라도 아케이드에 전시된 상품이나 도시에 잔존한 흔적들을 통해 그 자체가 자본주의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벤야민은 한편으로 초현실주의적 경험 서술을, 다른 한편으로 이를 비판하기 위하여 마르크스의 역사 서술, 특히 상품 물신성의 문제의식을 도입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의 한계를 인식하고, 파사주를 근대성이 보여주는 파국적 현실을 넘어 인류의 유토피아적 소망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그의 관점에서 보면, 파리의 아케이드는 우선 자본주의가 잉태한 꿈의 형상물로 간주된다. 아케이드는 유리와 철골로 된 지붕과 대리석 바닥으로 여러 건물을 이어 만든 통로로, 통로 양측에는 우아한 상점들이 들어서 있다. 벤야민에 의하면, 이러한 아케이드는 도시인에게 꿈과 환상을 심어주지만 또한 자본주의의 본질을 은폐하는 최초의 소비문화 공간으로서 “하나의 도시, 축소된 하나의 세계가 되었다.” 화려한 상점들과 유흥가로 이루어진 아케이드는 신상품과 유행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상품 자본주의의 신전’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여기서 상품들은 “더 이상 인간에 의해 지배받지 않게” 되며, 그 자체로 “신비로운 위계질서 속으로 자립해 들어”가는 물신성 또는 교환가치를 획득한다. 이러한 상품 물신성이 지배하는 파사주에서 모든 것들이 서로 아무런 관련성 없이 제자리를 상실한 채 마치 뒤죽박죽된 꿈속의 이미지들처럼 섞여

16) 벤야민의 도시연구는 도시의 인상학(심혜련, 2008), 도시의 지형학(윤미애, 2011) 등으로 지칭된다. 특히 ‘도시의 지형학’은 독일어, Topographie를 번역한 것으로(윤미애, 2011: 154), ‘topo-’가 장소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장소학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하겠다.

있다(Benjamin, 1999; 윤미애, 2011에서 재인용).

벤야민은 이처럼 상품 환상에 도취되어 일상생활의 욕망이 되는 도시를 판타스마고리아(phantasmagoria, 환등상) 도시라고 지칭한다. 이러한 도시에서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낸 생산물을 상품 물신성(판타스마고리아)을 통해 숭배하게 된다. 아케이드뿐만 아니라 당시 파리에서 열렸던 세계박람회는 근대 산업과 기술을 자축하면서 상품의 물신성을 찬양하는 장소였다. 벤야민의 묘사에 의하면, “세계박람회는 상품이라는 물신을 위한 순례지이다. ... 만국박람회는 상품의 교환가치를 미화한다. 박람회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상품의 사용가치는 뒤로 밀려난다. 만국박람회는 환등상을 열어주는데, 사람들은 기분 전환을 위해 그러한 공간으로 들어간다. ...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와 타인으로부터의 소외를 즐기는 가운데 오락산업의 조작에 몸을 맡긴다”(Benjamin, 1999: 7). 물신화된 상품으로 뒤덮인 아케이드, 물신을 찾아가는 순례지로서 세계박람회처럼, 자본주의적 물신성은 개별 상품이나 장소를 넘어서 도시공간 전체 현상으로 이해되며, 그 속에서 사람들은 환상 속에서 자신과 타인으로부터의 소외를 욕망의 방식으로 즐기게 된다.

벤야민의 저술에서 아케이드의 개념과 함께 잘 알려진 용어는 ‘산책자(flaneur)’이다. 당시 이 용어는 파리의 거리를 어슬렁거리며 배회하는 사람들을 뜻했지만, 벤야민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도시의 산책자는 거리의 존재이며, 군중 속에 있지만, 이들과는 구분된다. 산책자는 상품 물신성을 드러내는 도시의 물체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자신도 상품 또는 일종의 매력적인 시장조건을 창출한다. 그러나 벤야민의 산책자는 일반 행인이나 구경꾼과는 달리, 외부 환경에 수동적으로 자신을 내맡기지 않는다. 산책자는 도시 공간을 헤매면서 잊혀진 과거의 기억을 되찾고자 한다. 과거의 흔적들을 간직한 도시는 산책자의 기억을 돕는 무대가 된다. 도시의 경관이나 산책한 하찮은 사물들은 예기치 않게 과거 기억과 만날 수 있도록 한다. 벤야민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프루스트의 ‘비자발적 기억’의 개념을 차용한다. 의식적 기억과는 달리 비자발적 기억은 우연히 특정 계기나 장소에서 마주치는 자극

에 의해 되살아난다. 이런 기억은 특히 장소에 잔존하는 흔적들에 깃들여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의 흔적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아우라와는 구분된다. “흔적은 이를 남긴 것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가까이 있는 것의 현상이다. 아우라는 설령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무리 가까이 있더라도 멀리 있는 것의 현상이다. 흔적 속에서는 우리가 사물을 소유한다. 아우라에서는 사물이 우리를 자기 것으로 만든다”(Benjamin, 1999: 447). 도시는 흔적들이 쌓여 있는 저장고이며, 잊혀진 기억을 상기시키는 무대이다. 도시가 간직한 흔적들 속에서 우리는 사물에 대한 기억을 되살림으로써 회상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아우라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멀리 있는 것들을 인위적으로 가까이 있게 만든 것이며, 비록 현재 가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시적일 뿐이다(심혜련, 2008: 116). 그러나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기억과 연결될 수 있는 흔적들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과거의 흔적들이 사라진 도시에서 기억들은 강제적으로 잊혀진다. 이러한 구분은 하이데거가 도구적 존재자의 공간성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눈앞에 있음’과 ‘손안에 있음’의 구분과 비슷한 느낌을 가지도록 한다. 또한 오제의 비장소 개념처럼, 도시 공간은 과거의 흔적들을 지워버리고 점차 현재로서만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벤야민은 마치 19세기의 도시에서 꿈의 흔적을 찾는 것처럼 보인다. “19세기 문화에 흔적을 남겼던 꿈은 그것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도 전에 신속하게 잊혀져 갔다. 벤야민이 쓰는 지형학[장소학]은 그러한 꿈의 흔적을 찾기 위한 것으로, 그것에 대한 서술은 ‘눈을 뜨면서 꿈의 모든 요소들을 살리는 것’과 같다”(윤미애, 2011: 155). 하지만 과연 전환기적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파리와 같은 대도시가 자본주의가 살려내야 할 어떤 유토피아적 꿈을 내재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도시의 산책자는 소외된 일반 군중과는 다른 사람들(예술가, 지식인 등)이며, 물신화된 도시 현실을 직시하면서 자본주의의 꿈에서 변증법적으로 깨어나 근대성에 내재된 물질성을 극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현실에 대한 대안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벤야민은 초현실주의가 꿈의 영역에 집착했다고 비판하면서 이들의 자아도취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도시의 환각(판타스마고리아)에서 깨어나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벤야민에 의하면, 도시는 물신화된 판타스마고리아의 공간이지만 또한 도취된 장소들에서 깨어나 모험을 낚는 기회들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시는 일상적인 진부한 삶의 연속성이 거부되고, 이탈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르페브르처럼 벤야민에게 일상적 도시는 소외의 장소이며, 또한 동시에 탈소외로 나아가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벤야민은 상품 물신성의 도시를 극복할 수 있는 혁명적 실천을 급진적으로 재정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판타스마고리아의 공간 속에서, 새로운 주체들은 끊임없이 구성되고, 해체되고, 또 재구성된다. 그 과정에서 역사적 망각을 강요하는 스펙터클에 대항하여, 몸속에 담겨있는 유토피아의 기억을 일깨우는 노력을 벤야민은 혁명이라 부른다. 이 정치적 실천을 위해, 벤야민은 ‘미학적 기술자’를 요청한다”(강재호, 2010: 143). 그러나 우리가 벤야민의 도시 산책자 또는 ‘미학적 기술자’가 물신성의 환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거대도시의 판타스마고리아 공간을 변혁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미셸 드 세로트(1925~1986)는 예수회 수도사로서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연구자이며 운동가로, 그의 대표작 『일상생활의 실천』(de Certeau, 1984; 불어본: *L'invention du quotidien*, Vol. 1, *Arts de faire*)은 벤야민의 저술들보다 훨씬 뒤인 1980년 출간되었지만, 벤야민의 산책자와 비슷한 사회공간적 배경과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그의 사유는 벤야민보다는 르페브르나 푸코 등의 프랑스 철학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주요 논제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일상적 행위로서 걷기(walking)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벤야민과 세로트는 공통적으로 도시 공간을 물신화된 상품 또는 권력이 작동하는 장소로 인식한다. 그러나 전자에 의하면 물신화된 도시에서의 산책자는 환상에 빠져 있는 (또는 소외된) 대중과는 구분되지만, 후자에게 도시를 걷는 보행자는 바로 일반 시민이다. 드 세로트는 일상생활이 모순과 소외로 인해 이론화

하기 어렵지만, 또한 동시에 변화의 가능성과 창조적 잠재력으로 충만한 영역으로 인식한다. 특히 그가 일반 시민들의 걷기 행위에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 가지는 창조성과 발화적 행위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세르토에 의하면, 장소는 일상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공간은 이러한 장소들이 수많이 모여 이루어진다. 즉 물리적 위치를 가지는 장소에 인간의 실천적 요소가 더해지고 다양한 의미가 부여되면, 공간이 된다. 이렇게 실천된 장소들의 결합체로서 공간은 속도와 시간, 방향 등 여러 요소들이 상호교차하면서 상황과 맥락에 따라 경합하게 된다(de Certeau, 1984: 117). 그는 공간과 장소의 관계를 랑그(langue)와 빠롤(parol)의 관계에 비유하여, 언어를 구성하는 규칙과 관습의 체계인 랑그를 공간에, 이러한 규칙들이 발화를 통하여 구체적인 표현을 부여받는 빠롤을 장소와 관련지어 설명한다. 이러한 점에서 크레스웰(2012: 163)에 의하면,¹⁷⁾ 세르토의 연구에서 “핵심적 긴장은 체계적인 공간 문법 — 우리를 거주시키고 우리에게 의해 구성되지 않은 질서 — 과 미리 결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이 문법을 사용하는 우리 능력 간의 긴장”이라고 해석된다. 이를 재해석하면, 일상생활은 우리가 사용하면서 재생산하지만 우리에게 의해 구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공간 (그리고 언어) 문법과 이를 임의적인 (즉 자율적 또는 탈소외의) 방식으로 사용하려는 우리의 (장소) 능력 간 긴장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일상생활의 공간을 물신화된 권력과 질서가 작동하는 장으로 이해하고 일상으로부터 소외를 탈피하기 위한 창조

17) 이와 관련하여 크레스웰(2012: 63)은 “세르토[가] 공간과 장소 개념을 기존의 일반적 개념 구분과는 정반대로 사용한다. 그에게 장소는 실천이 발생하는 빈 격자인 반면, 공간은 실천에 의해 창조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이해는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세르토의 공간과 장소 간 구분에서 장소는 실천 이전에 존재하는 선행적인 것(빈 공간)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점은 케이시(2016)가 주장하는 것처럼, 장소가 공간에 선행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세르토가 제시한 높은 곳에서 보는 (도시계획가) 시선과 낮은 곳에서 보는 (보행자)의 시선은 도시를 각각 추상공간과 구체공간(즉 장소)과 조응하는 것은 분명하다.

적 실천 방안을 찾아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로토는 우선 푸코가 제시한 파놉티콘의 권력 공간을 일상적 차원에서 재전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르페브르가 소외된 일상생활에 대한 대안을 위해 제시한 ‘전략’과 ‘전술’ 간 구분을 수용한다. 전략이란 권력 의지의 주체가 행사하는 힘 관계의 계산을 의미하며, 고유한 장소를 가정하고 이와 경계를 접한 외부를 생산한다. 전술은 국지적 차원에서 유동하면서 생태적인 구성체를 모색하며, 공간적 혹은 제도적으로 국지화된 ‘고유영역’이나 경계선에 의존하지 않는 계산을 의미한다(de Certeau, 1984: 34~38). 전략적 장소는 재산, 안전, 통제, 소유의 행사를 위해 한 지역을 점유하여 추상적 모형에 입각하여 총체적 집결지를 건설하는 지점이라면, 전술적 장소는 불안정성, 주변성, 이동성으로 특징 지워지며 ‘일상의 실천에 정치적 차원을 제공하며’ 약자를 강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잠재적 전복 능력을 내재한다. 이러한 장소 전술은 “공간을 점유하지 않고 통과하며 흔적을 남기는 ‘모험적 편력의 궤적’이므로 우연한 돌연변이로 잡종이고 예측불가능한 계산”으로 이해된다(장세룡, 2004: 216). 이처럼 전략과 전술은 모두 권력/공간과 관련되지만, 전략은 공간에서 소외된 강자가 역사적 시간을 지배하는 장소의 승리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전술은 역사적 시간의 사용에서 소외되고 고유한 장소가 부재한 가운데 활동을 펼쳐나가는 약자의 계산된 행위로 해석된다.

이러한 전략과 전술 간 구분은 세르토가 제시한 도시 공간을 보는 두 가지 시선 또는 도시에 관한 두 가지 유형과 조응한다(De Certeau, 1984: 92). 그는 지금은 사라진 세계무역빌딩과 같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시선과 거리 보행자들의 눈에 비치는 일상적 시선을 구분한다. 전자는 도시 공간을 하나의 텍스트로 총체화하여 독해하는 권력자나 관광객의 시선이며, 후자는 도시의 사용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보행자의 시선이다. 권력자의 시선은 도시를 독해하는 소외된 그리고 소외시키는 시선이라면, 보행자의 시선은 전체를 조망하기 어렵지만 도시의 근원적 문제(소외와 불투명)를 감지하는 탈소외의 시선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 도시에는 두 가지 상반된 힘 관계가 작동한다.

하나는 도시를 조망하며 설계하는 건축가나 계획가 등이 만드는 권위적 질서로, 이들은 개념들로 연결된 ‘개념도시’(concept-city)를 만들어낸다(de Certeau, 1984: 95). 다른 하나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용자’들이 만드는 실천적 체험으로, 이들은 도시를 구성하는 개념들의 연결을 건너뛰거나 재구성한 ‘사실 도시’를 만들어 낸다.

세르토에 의하면, 현대 도시는 가시성의 욕망이 넘치고 도시 개념들과 도시 계획의 체계가 전략적으로 수행되는 공간이다. 도시계획적 담론에 의해 건설된 도시는 분류를 통해 도시 공간을 차별화하고 재배치하면서, 다룰 수 없는 모든 것을 배제함으로써 기능주의적 도시 관리의 ‘폐기물들’(비정상, 일탈, 질병, 죽음 등)을 만들어 낸다. 달리 말해 개념 도시는 도시 공간을 차별적으로 소외시키며 다룰 수 없는 것들은 배제시킨다. 도시계획가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계속 증가하는 폐기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끌어들이고자 하지만, 이윤체계는 손실을 발생시킨다. 체계 밖에서는 술한 비참함과 가난의 형태가, 체계 안에서는 술한 폐기물들의 형태가 생산을 비용으로 바꾸어 버린다. 도시의 합리화라는 전략적 담론 속에서 기능주의적 조직화는 ‘발전’을 특권화함으로써 도시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인 공간 자체를 망각하게 한다(de Certeau, 1984: 94~95; 장세용, 2004: 223).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소외된 도시에서도, 세르토는 기존의 도시 감시망 구조와 조직 속에서 새로운 전술을 발견할 것을 촉구한다. 그는 높은 곳에서 도시를 조망하는 전체적 권위적 시선에 따른 소외시키는 전략에서 거리 보행자의 일상적 시선과 이에 따른 탈소외 전술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세르토는 이러한 일상적 전술의 구체적 방안으로 걷기를 제안한다. 도시 보행자의 걷기는 도시 공간을 의미화하는 실천 행위이며, 전략적으로 장소의 의미를 되살리는 행위이다. 드 세르토는 걷기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언어를 일종의 메타포로 사용한다.¹⁸⁾ 즉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위해 주어진 언어의 문법 구조를 이용하지만, 실제 이를 사용하는 방식은 거의 무한하게 많다. 마찬가지로 보행자는 이미 물리적으로 건조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불균

등한 권력관계나 이해관계가 구현된 거리를 걸어가지만, 그의 걷기는 수많은 방식과 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재미 때 같은 움직임의 덩어리는 특이성의 셀 수 없는 집합이며, 보행자의 움직임은 장소들을 엮어 직물처럼 짜낸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사실상 도시를 만들어 내는 실제 체계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공간적 실천과 의미화 실천을 관계짓는 세 가지 독특한(그러나 연관된) 기능, 즉 믿을 만한 것, 기억할 만한 것, 그리고 원초적인 것이 성립된다(de Certeau, 1984: 105). 이러한 세 가지 상징적 메커니즘들(전설, 기억, 꿈)은 도시(계획)주의적 체계화를 회피하면서, 도시에 관한 그리고 도시 담론의 장소를 구성한다.

세르토의 주요 관심은 푸코적 파놉티콘과 같은 (공간) 권력의 통제와 감시 체계에서 벗어나는 길, 또는 도시계획가들이 단일 개념으로 획일화한 삭막한(추상적) 공간에서 벗어나는 출구를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르토가 제시한 방안은 도시 공간에서 걷기이다. 여기서 걷기는 이동이 통제되고 신체가 규율되는 파놉티콘 공간 속에서 벗어날 방안을 은유한 것이라고 하겠지만, 과연 걷기만으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물론 세르토는 걷기를 ‘일상생활의 창조적 실천성’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일상적 실천을 통해 획득된 체험들을 모아서 도시 공간을 다시 쓰기 그리고 종교순례를 그린 여정 지도처럼 일상적 활동에 관한 지도를 그리도록 제안한다. 이러한 활동 지도 그리거나 스토리텔링 전술은 도시의 일상생활 속에서 비판적 상상력과 창조적 실천을 통해 도시 공간을 재구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김승환, 2022). 나아가 일상생활공간에 침투하여 이를 식민화시키고 있는 자본과

18) 세르토는 걷기와 말하기의 비교를 통해 걷기를 공간에서의 언술행위(enunciation)로 정의한다. 이들이 비교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화자가 언어 체계를 전유하는 것처럼, 걷기는 보행자가 공간배치 체계를 전유하는 과정이다. 둘째 발화행위가 언어 체계의 청각적 실현이듯이, 걷기는 장소의 공간적 실현이다. 셋째, 발화행위가 상대방과의 사소통을 위한 계약을 전제로 하듯이, 걷기 행위는 구분된 위치들 간 움직임의 형태를 띤 실용적 계약이다(de Certeau, 1984: 97~98).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했다고 하겠다(김언영, 2020). 그러나 그의 논의에는 현대도시를 탈피하거나 전환시키기 위한 급진적 변혁이 아닐지라도, 르페브르가 제시한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과 같이 도시계획가들의 개념도시에 직접 개입하여 획일화된(추상적이며 소외된) 공간을 벗어나도록 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5. 결론

장소에 관한 논의에서 핵심적 논제들 가운데 하나는 장소와 공간 간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공간은 텅 빈 우주 공간이나 거리와 부피를 가지는 기하학적 공간 또는 구체적 특성을 가지지 않는 추상적 공간 등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공간 개념은 데카르트 이후 근대 계몽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물에 앞서 선형적으로 존재하며, 고정적이고 불변적 틀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절대적 공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공간은 사물이 부재한 공백이며, 표준적 계량화 방식으로 측정되고 계산될 수 있다. 이 같은 공간관은 오늘날에도 공간에 관한 일반적 인식에서뿐 아니라 학술적으로 뉴턴적 자연과학이나 정책적으로 정부의 국토계획 등에도 만연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관은 공간을 사물과 분리시켜 추상화시킴으로써 장소 소외 또는 공간 물신론에 빠지도록 하며, 사람이나 사물의 구체적 특성들을 무시하고 획일화시킴으로써 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절대적 공간관에 따르면, 장소는 텅비고 추상적이며 절대적으로 고정된 어떤 공간 내에서 후차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우리는 흔히 어떤 한정된 공간을 지칭하기 위하여 장소나 지역, 구역, 국지성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용어 사용은 내적으로 분리가능한 공간이 우선 존재하고, 장소는 이의 일부로 특수하고 고유한 성질을 부여받는 실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예로, 어떤 총체적 공간 내에 구체적이고 개별적 특성을 가지는

가정이나 집, 이웃과 지역사회, 도시와 촌락, 다층적 행정구역, 그리고 지구를 영토로 분할한 국가 등과 같은 단위 공간들이 구분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은 일상생활에서뿐 아니라 장소에 관한 학문적 논의, 심지어 인간주의적 지리학자로 장소 연구를 선도했던 이-푸 투안(Tuan, 1977: 6)의 서술, 즉 “동질적인 공간(차별화되기 전의 공간)은 우리가 그 공간을 더 잘 알고 가치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장소가 된다”는 서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어떤 땅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공간이 의미를 부여받고 장소가 되는 방식들” 가운데 하나로 이해되기도 한다는 서술을 찾아볼 수 있다(크레스웰, 2012: 13).

그러나 하이데거를 포함하여 실존주의적 전통의 연구자들은 대체로 공간에 비해 장소가 더 근본적이고 선행적이라는 사고를 견지한다. 케이시(2016)는 『장소의 운명』에서 고대 신화나 종교의 서사,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장소 개념에서부터 근대 철학에서 장소와 공간에 관한 논의, 그리고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의 장소에 관한 관심에 이르기까지 장소 개념의 역사적 흐름을 고찰했다. 이러한 장소의 계보학을 추적하면서, 케이시는 장소의 개념이 왜 사라졌으며, 공간의 개념으로 대체되었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에 의하면, 그 이유는 장소가 절대적인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개념들, 즉 근대적 시간과 공간 개념에 예측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된다. 이로 인해 장소의 개념이 공간의 개념에 역사적으로 우선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장소가 공간의 단순한 부차적 변용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공간 개념에 대한 장소 개념의 선행성은 공간 개념을 무시해도 좋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하비(1995; Harvey, 2009)와 그 외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장소와 공간은 동전의 양면으로 서로 변증법적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공간 개념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끌었다는 점에서, 장소의 개념도 다시 부각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장소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과거처럼 실존주의적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 논의와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장소 소외의 개념은 이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소 소외의 개념은 그동안 유의하지만 단편적으로 제시되었던 장소 상실 관련 개념들을 포괄하면서 체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장소 소외의 개념화를 위하여, 이 논문은 한편으로 마르크스주의적 전통에서 제시된 소외의 개념들을 원용하고, 다른 한편으로 장소(상실)에 관한 논의에서 소외의 개념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특히 이 논문은 기존의 장소 개념에서 제시되었던 3가지 구성요소들에 주목하면서, 장소 소외를 첫째 사람이나 사물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는 상황 또는 장소와 사람 또는 사물의 관계성이 분리되거나 단절된 상황, 둘째 행위의 장(무대)에서 구조적 힘(메커니즘)의 지배로 인간의 주체적 행위성이 상실 또는 위축되고 구조에 의해 행위가 지배되거나 왜곡되는 상황, 셋째 인간과 장소 간에 형성된 정서적 감정(애착)이나 정동이 소멸 또는 약화되고 이로 인해 장소 정체성이나 안전감이 상실되거나 불안과 불만이 고조된 상황으로 규정한다.

장소 상실에 관한 이러한 개념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 유의성이 확인되고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확인 또는 검증 방식의 일환으로 이 논문은 장소와 소외의 개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이론가들로 하이데거와 아렌트, 벤야민과 세르토의 저서들을 재고찰함으로써 장소 소외의 개념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했다. 이러한 고찰의 결과를 여기서 재요약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들의 사유에서 장소 소외는 매우 핵심적 개념이며, 또한 이들의 사유는 장소 소외의 개념화에 매우 유의한 통찰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학문적으로 장소 소외에 관한 비판적 이론을 발전시키는 한편, 현실 세계에서 심화되고 있는 도시 소외에 관한 관심을 촉진하고, 나아가 탈소외의 새로운 도시 공간 또는 장소 구축을 위한 논의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1차 심사완료일: 2023.02.23.

1차 수정완료일: 2023.03.15.

2차 심사완료일: 2023.03.17.

게재확정일: 2023.03.17.

최종원고접수일: 2023.03.20.

Abstract

From ‘loss of place’ to ‘place alienation’

Byung-Doo Choi

In order to explore problems of ever-increasing alienation in contemporary urban society, this paper is to suggest that we need to transform our concern from the concept of ‘loss of place’ to that of ‘place alienation’. Thus this paper first reconsider the concept of place and related terms such as placelessness, non-place, displacement, place anachorism, and liminal space. Then, this paper tries to formulate the concept of place alienation, applying existing concepts of alienated labour and four type of alienation, commodity fetishism, and reification in the Marxist tradition on the one hand, and defining place alienation as thing’s detachment of or removal from its own place, domination of agency by structural mechanisms in locale, and loss of sense of place or weakening of place affect, in terms of three elements of place, that is, site, locale, and sense of place on the other. Finally this paper re-interprets briefly writings of Heidegger, Arendt, Benjamin, and de Certeau to see and identify significance and possibility of extending the concept of place alienation.

Keywords: loss of place, place alienation, Heidegger, Arendt, Benjamin, Certeau.

참고문헌

- 강재호. 2010. 「변증법적 모순극 - 발터 벤야민의 초현실주의 '경험' 비판」. 《시대와 철학》, 21(3), 119~148쪽.
- 기든스, 안소니. 1991. 『사적 유물론의 현대적 비판』. 최병두 역. 나남.
- 김동훈. 2011. 「공간-마련과 깃들임의 사유: 하이데거 사유를 통해 본 도시 공간의 의미」. 《도시 인문학연구》, 3(1), 9~47쪽.
- 김승환. 2022. 「도시 공간의 설천으로서 성찰적 걷기에 관한 연구 - 미셸 드 세르토와 스텔리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53, 205~235쪽.
- 김언영. 2020. 「근대적 장소와 일상의 실천」. 《비평과 이론》, 25(2), 31~50쪽.
- 네그리, 안토리오 & 하트, 마이클. 2014. 『공동체: 자본과 국가 너머 세상』. 정남영·윤영광 역. 사월의 책.
- 렐프, 에드워드. 2005. 『장소와 장소 상실』.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논형.
- 루카치, 게오르그. 2015. 『역사와 계급의식』. 조만영·박정호 역. 지식을 만드는 지식.
- 무스토, 마르셀로. 2011. 「마르크스 소의 개념에 대한 재논의」. 《마르크스주의 연구》, 8(2), 85~113쪽.
- 문규민. 2021. 「지능형 도시와 그 불만: 스마트시티와 도시 정동의 딜레마」. 《공간과 사회》, 31(2), 198~231쪽.
- 신진숙. 2019. 「조선산업을 통해 본 산업도시의 정동 정치 - 정동적 도시론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4(2), 177~198쪽.
- 심혜련. 2008. 「도시 공간과 흔적 그리고 산책자」. 《시대와 철학》, 19(3), 103~135쪽.
- 아렌트, 한나. 박미애·이진우 역. 2006. 『전체주의의 기원』, 1, 2. 한길사.
- _____. 1996. 『인간의 조건』. 이진우·태정호 역. 한길사.
- _____. 2004. 『혁명론』. 홍원표 역. 한길사.
- 양창아. 2014. 「한나 아렌트의 장소론: 공적 영역과 평의회 체제에 대한 사유의 재해석」. 《코기토》, 76, 198~237쪽.
- 오제, 마르크. 2017. 『비장소: 초근대성의 인류학 입문』. 이상길·이윤영 역. 아카넷.
- 윤미애. 2011. 「현대도시의 지형학과 벤야민의 도시 읽기 - 발터 벤야민의 <파사주 프로젝트>에 대한 소론」. 《독일어문학》, 52, 153~173쪽.
- 윤병렬. 2007.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에서 고향상실과 귀향의 의미」. 《현대유철철학연구》, 16, 61~98쪽.
- 이유태. 2013.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공간 이해」. 《해석학연구》, 33, 243~274쪽.
- 장세룡. 2004. 「미셸 드 세르토의 일상과 민중문화」. 《서양사론》, 82, 205~238쪽.
- 정예슬. 2022. 「전치된 자들의 장소만들기: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 딸배들의 작업장 지리」. 《공

- 간과 사회》, 79, 82~114쪽.
- 정현목. 2013. 「전통적인 장소의 변화와 ‘비장소’(non-place)의 등장: 마르크 오제의 논의와 적용 사례들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9(1), 107~141쪽.
- 조경진·한소영. 2011. 「역공간(liminal space) 개념으로 해석한 현대 도시 공공공간의 혼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9(4), 49~59쪽.
- 최병두. 2002.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소성의 상실과 복원». 《도시연구》, 8, 253~278쪽.
- _____. 2023. 「난민의 소외와 장소를 가질 권리로서 환대». 《인간과 평화》, 4(1).
- 케이스, 에드워드. 2016. 『장소의 운명』. 박성관 역. 에코리브로.
- 크랭, 마이클·스리프트, 나이젤. 2013. 『공간적 사유』. 최병두 역. 에코리브로.
- 크레스웰, 팀. 2012. 『장소』. 심승희 역. 시그마프레스.
- 하비, 데이비드. 1995. 「공간에서 장소로 다시 반대로: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에 대한 성찰」. 박영민 역. 《공간과 사회》, 5, 32~71쪽.
- _____. 2014. 『자본의 17가지 모순』. 황성원 역. 동녘.
- 하이데거, 마틴. 2008. 『강연과 논문』. 이기상·신상희·박찬국 역. 이학사.
- Agnew, J. 1987. *Place and Politics: The Geographical Mediation of State and Society*. London: Routledge.
- Benjamin, W. 1999. *Arcades Project*. Harvard Univ. Press.
- Bondi, L. 2005. “Making connections and thinking through emotions: between geography and psychotherapy.”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0, pp. 433~448.
- Burkitt, I. 2019. “Alienation and emotion: social relations and estrangement in contemporary capitalism.” *Emotions and Society*, 1(1), pp. 51~66.
- Castree, N. 2001. “Commodity fetishism, geographical imaginations and imaginative geographi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33(9), pp. 1519~1525.
- Cresswell, T. 1996. *Place/ Out of Place: Geography, Ideology and Transgression*. Minnesota: Univ. of Minnesota Press.
- De Certeau, M. 1984.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ebarbieux, B. 2017. “Hannah Arendt’s spatial thinking: an introduction.” *Territory, Politics, Governance*, 5(4), pp. 351~367.
- Diaz-Parra, I. 2020. “Overtourism, place alienation and the right to the city: Insights from the historic centre of Seville, Spain.”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9(3), pp. 1~18.
- Douglas, M. 1966.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Concepts of Pollution and Taboo*. New York: Praeger.
- Entrikin, N. 1991. *The Betweenness of Place: Towards a Geography of Modernity*.

-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 Harvey, D., 2009. *Cosmopolitanism and the Geographies of Freedo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eidegger, M. 1962. *Being and Time*. Oxford: Blackwell.
- Jaeggi, R. 2014. *Alienation*. Columbia Univ. Press.
- Lefebvre, H. 1991. *Critique of Everyday Life* (vol.1). London: Verso.
- Marx, K. 1975. *Early Writings*. Middlesex, Harmondsworth: Penguin Books.
- _____. 1976. *Capital*, vol.1. Harmondsworth: Penguin.
- Massey, D. 1997. "A global sense of place." in Arnes, T. and Gregory, D.(eds). *Reading Human Geography*. London: Arnold, pp. 315~323.
- Merrifield, A. 1993. "Place and space: a Lefebvrian reconciliation." *Transactions, Institution of British Geographers*, NS 18, pp. 516~531.
- Pile, S., 2010, "Emotions and affect in recent human geography."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5(1), pp. 5~20.
- Sayers, S. 2011. *Marx and Alienation: Essays on Hegelian Them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Seamon, D. 1980. "Body-subject, time-space routines, and place-ballets." in Buttimer, A. and Seamon, D.(eds). *The Human Experience of Space and Place*. London: Croom Helm, pp. 148~165.
- Soja, E. and Hadjimichalis, C. 1979. "Between geographical materialism and spatial fetishism." *Antipode*, 11(3), pp. 3~11.
- Ten Houten, W. 2019. *Alienation and Affect*.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Thrift, N. 1994. "Inhuman geographies: landscapes of speed, light and power." in Cloke, P.(ed). *Writing the Rural: Five Cultural Geographies*. London: Paul Chapman, pp. 191~250.
- _____. 2004. "Intensities of feeling: towards a spatial politics of affect."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86(1), pp. 57~78.
- Tuan, Y-F. 1980. "Rootedness versus sense of place." *Landscape*, 24, pp. 3~8.
- Webber, M. 1964. "The urban place and the nonplace urban realm." in M.Webber et al (eds). *Explorations into Urban Structure*. Univ. of Pennsylvania Press, pp. 79~153.
- Zukin, S. 1991. *Landscapes of Power: From Detroit to Disney World*. Berkeley, CA: Univ. of California Press.